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3953.62	↓ 코스닥	878.70
	(-135.63)		(-23.97)
↓ 금리 (미국 9년)	2.850	↑ 환율	1466.65
	(-0.064)		(+8.65)

화면 속 시대는 끝났다 세상 밖으로 나온 AI

韓 AI·수소·방산... UAE서 삼각편대 띄운다

산업 프레임 바깥 피지컬AI 〈下〉미래산업 재편

인공지능(AI)이 더 이상 모니터 화면 속에서 머물지 않는다.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센서, 로봇 하드웨어가 결합하며 AI가 물리 세계를 직접 움직이는 '피지컬AI'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제조와 물류를 넘어 도시 운영까지 자동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로봇 운영체제(OS) 선점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노동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한국도 산업 구조의 재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디지털에서 현실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피지컬AI는 'AI가 현실을 움직이는 기술'로 정의된다. 단순한 로봇 기술을 넘어 ▲센서 ▲자율제어 알고리즘 ▲생성형 AI ▲시뮬레이션 ▲엣지 컴퓨팅 ▲로봇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업계에서는 "AI의 두 번째 전성기이자, 오프라인 산업의 마지막 디지털 전환"으로 평가한다.

현실 산업 전반에 자동화 확산
글로벌 테크 기업 전략 대전환
한국 제조업 중심 구조에 변화
인력난 심화 속 기술수요 급증

특히 올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피지컬AI를 차세대 전략의 중심에 올렸다. 엔비디아는 '로봇의 GPT 시대'를 선언하며 옴니버스 기반 시뮬레이션과 로봇 운영체제 확장에 나섰다. 오픈AI와 미국 피겨AI는 LLM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제어하는 모델을 공동 개발 중이다. 테슬라는 옴니머스를 생산라인에 투입해, 로봇이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하며 성능을 높이는 실험을 시작했다. 아마존도 물류센터 전 과정에 피지컬AI를 적용하며 자동화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 흐름도 '물리AI'에 쏠린다. 미국과 유럽 벤처캐피탈은 제조·물류·드론·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투자 비중을 크게 늘렸고, 유니콘 기업 상당수가 피지컬AI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AI가 텍스트를 생성하던 시대에서, 움직임을 생성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분석한다.

국내 기업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 네이버는 1784 빌딩을 로봇 실증 중심으로 운영하며 2030년까지 로봇 1000대 투입을 목표로 한다. 카카오와 로보티즈는 생성형 AI 기반 자율이동 로봇을 도시 생활 서비스에 적용 중이다. 제조업에서는 현대차·삼성전자·한화오션 등 대기업이 생산라인 무인화와 불량검출 자동화에 피지컬AI를 도입하고 있다. 건설사들도 드론·로봇을 활용한 공정 관리 시스템을 빠르게 확대하는 추세다.

정책 환경도 변화한다. 이재명정부는 'AI 로봇 국가전략'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도시단위 실증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산업부·중기부는 성남·대구·아산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물류로봇, 도시 인프라 자동화 실증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피지컬AI를 인력난 해소의 핵심 대안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피지컬AI의 도입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로봇이 특정 작업만 수행하던 기존 자동화와 달리, 생성형 AI와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피지컬AI는 복합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한다. 단일 공정의 효율 개선을 넘어, 공장 전체·도시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구조 변화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장 빠르게 피지컬AI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노동력 감소 속도, 제조업 비중, 도시 밀집도 등 구조적 요인이 피지컬AI 수요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대기업은 생산라인 자동화를 넘어 사무·유통·서비스 영역까지 피지컬AI 실증 범위를 넓히고 있다. 'AI가 움직이는 경제'가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피지컬AI는 과거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이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꿔놨듯이 '로봇의 아이폰 순간'을 향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정 국가·기업이 로봇OS와 시뮬레이션 생태계를 선점하면, 세계 로봇 시장 주도권을 거의 독점할 수 있어서다. 엔비디아·오픈AI·테슬라가 일제히 로봇OS 경쟁에 나서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노동력 위기와 제조업 중심 구조를 동시에 가진 만큼 피지컬AI 확산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李대통령 순방 韓 총수단 동반행보
UAE 대통령과 미래산업 빅딜 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만난다. 인공지능(AI), 수소, 방위산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협력을 이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김동관 부회장은 오는 19일 UAE에서 열리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경제인협회와 코트라(KOTRA)가 공동 주최하는 양국 경제 협력 행사로,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 유영상 SK수펙스협회의 AI위

원장 등 주요 기업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6면〉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 회장 취임 후 첫 행보로 UAE 아부다비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은 등 UAE와 협력을 강화했다. 삼성은 과거 부르즈 칼리파(삼성물산), 정유 플랜트(삼성E&A)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UAE 기업들과 파트

너십을 맺어왔다.

정의선 회장은 UAE 정부 및 국부펀드와 수소·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수소 ▲그린 알루미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코스피가 전 거래일(4089.25)보다 135.63포인트(3.32%) 내린 3953.62에 마감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02.67)보다 23.97포인트(2.66%) 하락한 878.70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58.0원)보다 7.3원 오른 1465.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AI 버블’ 충격에도 개미는 ‘빛투 행진’

뉴욕발 악재에 아시아 증시 급락
외국인 이탈 속 개인만 10조 매수

뉴욕발 '인공지능(AI) 버블' 우려가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증시에 한파를 몰고왔다. 한층 커진 증시 변동성에도 개인투자자의 '빛투(빛내서 투자)'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3·8면〉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2% 내린 3953.62로 마감했다. 7거래일 만에 4000선 무너졌다. 일본 닛케이225는 3.22%(4만 8702.98) 추락하며 5만선이 무너졌다. 홍콩 항셍지수, 대만 자취안지수, 중국

상해종합지수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원화 가치도 급락했다. 외국인이 이날 8000억원 가량 '팔자'에 나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7.3원 오른 1465.3원에 오전장을 마감했다.

뉴욕에서 날아온 'AI 버블' 우려가 글로벌 시장에 한파를 몰고 왔다는 분석이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평균은 1.2% 내렸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0.9%, 0.8%씩 내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기관들은 엔비디아를 포함, 인공지능(AI) 관련주 비중을 축소하는 분위기"라면서 "이 같은 AI주 지분 축소가 AI 산업 버블 논란이 확산 중인 현 시점에서 관련 불확

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불확실성은 코스피를 널뛰게 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3~18일) 코스피 하루 변동률은 2.67%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했던 4월(2.07%)은 물론 코스피가 처음으로 4000선을 뚫었던 지난달(1.33%)보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개인 매수세엔 불이 붙었다.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10조2930억원어치를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이 물량을 받아내며 10조5915억원을 순매수했다.

〈4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lkova@

메트로신문·경제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

오늘 오후 2~5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메트로 한줄뉴스



▲김 총리 “헌법준중TF, 공직사회 통합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 /사진 뉴시스
▲북, 한미 팩트시트에 “적대적 대결의지… 대응 조치 할 것”

▲대통령실, 北 ‘팩트시트’ 반발에 “북측에 적대·대결 의사 없다”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발의

▲강훈식, 사우디에 이 대통령 친서 전달… ‘경제·안보 협력 강화’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이진수 고발… “윗선 외압 밝혀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소회의실에서 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및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한국판 NTE 보고서’ 내년 상반기 발간

산업부, 관세·비관세장벽 분석
DB화로 기업 해외진출 지원

우리 정부가 미국의 NTE(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내년 상반기 발간한다. 매년 국가별 관세·비관세장벽을 체계적으로 분석·데이터베이스(DB)화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부처,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 K-패션 업계 간담회와 현장 방문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인종·통관 절차 등 비관세조치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는 업계 의견을 집중적으로 전달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산업부는내년 상반기 중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관계기관과 공동 발간하기로 하고, 연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국판 NTE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해 발

표하는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통칭 NTE보고서) 형태로 매년 발간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와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무역장벽 통합 DB’ 구축 방안도 검토하는 등 주요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기업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화하고, 업종별 애로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통상교섭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양자회담·FTA 공동위 등에서 논의된 무역장벽 이슈는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교역과 수출 증대에 대한 업계 기대와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면서도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등은 한층 복잡·다양화, 관세 이상의 실질적 무역장벽으로 우리 기업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장벽을 넘어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이 협업해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역장벽 발굴-공유-해소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해 무역장벽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서울 전세 평균 6.6억… 내년 더 오른다

공급부족 영향… ‘탈서울’ 진행중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6억 60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내년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 6378만원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고가였던 2022년 4월(6억8727만원)의 96.5% 수준으로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게 됐다.

공급 부족과 수요 쏠림으로 전세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내놓은 ‘2025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에 따르면 내년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4.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치솟는 서울 전세가에 ‘탈서울’ 현상도 진행 중이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만 가도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서울 순이동은 -7751명으로 거주 인구가 줄었지만 경기도는 7018명이 늘어 서울 인구 상당수가 경기도로 이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주요 도시 가운데 부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505만원으로 서울 전세가 평균을 밀돌며 ▲고양 5억1436만원 ▲김포 4억7026만원 ▲의정부 3억7401만원 등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에 지친 전세 수요가 경기도 비규제지역의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전세가 상승과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합리적인 가격과 낮은 대출 규제를 갖춘 비규제지역 지역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효성 조현준, 美에 2300억 투입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 증설

3년내 생산능력 50% 이상 확대
美 최대규모… AI 시대 선제대응

조현준 효성 회장이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미국 내 최대규모 변압기 공장으로 만든다.

효성중공업은 미국테네시주에 소재한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에 1억5700만 달러(한화 약 2300억원)를 투자해 2028년까지 초고압변압기 생산능력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의 추가 증설은 AI 전력 인프라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기 대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현준 회장의 주문에 따른 결정이다.

효성중공업은 멤피스 공장 인수부터 이번 추가증설을 포함 3차례의 증설까지 총 3억 달러(한화 약 4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왔다. 이번 추가증설로 효성중공업의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kV(킬로볼트) 초고압변압기 설계·생산이 가능한 공장이다. 765kV 초고압변압기는 설계 및 생산 난이도가 높은 전력기기로, 기존 345kV나 500kV 대비 송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대 초부터 미



효성중공업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 전경.

/효성

765kV 초고압변압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미국 송전망에 설치된 765kV 초고압변압기의 절반 가까이 공급해 왔다.

미국은 최근 노후 전력설비 교체 수요, AI 확산에 따른 전력망 확충 수요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미국 변압기 시장은 연평균 약 7.7% 성장, 2024년 약 122억 달러(약 17조 8000억원)에서 2034년 약 257억 달러(약 37조 5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력사업자들은 전체 전력수요(약 750GW)의 약 15.5%에 해당하는 116GW 규모의 데이터센터 전력 신규 공급을 확정하고, 2040년까지 추가로 309GW 규모의 전력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현지 생산기반 강화를 통해 고객들의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설비의 ‘적기 공급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미국 시장 내 공급망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이 향후 전력 인프라 시장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0년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인수했다.

조 회장은 “전력 산업의 미래는 설비 뿐만 아니라, 전력 흐름과 저장, 안정성을 통합 관리하는 역량에 있다”며 “이번 증설을 통한 북미 시장에서의 위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넘버원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젊은 리더십’ 기용… 변화·혁신 드라이브

CJ그룹, 2026 정기 임원인사
회장 장남 이선호, 미래기획그룹장
1980년대 이후 출생자 45% 달해



CJ그룹이 18일 2026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하며 그룹 전반에 세대 교체와 조직 체질 개선의 신호탄을 쏘았다. 신입 경영리더 승진자 40명을 대거 발탁, 지난해의 두 배 규모로 미래 성장 전략을 실행할 ‘젊은 리더십’ 중심의 인사를 단행했다. CJ그룹은 지난 10월 진행된 CEO 인사에 이어 각 사업군의 실무·운영 핵심 축을 새롭게 짜면서 그룹 내 변화·혁신 드라이브를 본격화한다.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미래기획실장이 미래기획그룹장을 맡아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게 됐다. 이 그룹장의 그룹 내 장악력과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그룹장은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미래기획그룹장을 맡는다. 이 그룹장은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으로 글로벌 식품사업 대형화를 진행하다가 지난 9월 6년 만에 지주사로 복귀했다.

올해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파격적인 세대 교체다. 36세 여성 리더 2명을 포함해 30대 승진자가 5명 배출됐고, 전체 승진자 가운데 1980년대 이후 출생자의 비중은 45%에 달한다.

CJ가 중기 전략의 속도를 내기 위해

‘빠른 실행력·디지털 감각·글로벌 경험’을 갖춘 젊은 리더들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 인재 발탁 기조도 확인했다. 여성 승진자는 총 11명(27.5%)으로 전년 대비 큰 폭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그룹 전체 여성 임원 비율도 기존 16%에서 19%로 상승했다. 특히 여성 고객 비중이 높은 올리브영(54%)과 CJ ENM 커머스부문(46%)에서는 여성 임원이 과반 수준에 이르렀다. 고객 구조와 조직 리더십의 일치도를 높여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직급과 연차보다 AI·데이터·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등 특화 역량을 우선한 인사도 두드러진다.

콘텐츠·커머스·물류·푸드 등 주요 계열사에서 기술 기반의 사업 혁신을 추진할 리더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CJ가 2026~2027년을 그룹 디지털 전환의 분기점으로 삼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CJ그룹 관계자는 “각 계열사 CEO 주도로 사업 구조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역량 있는 리더들을 과감히 발탁했다”며 “젊고 성장 의지가 강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열어 그룹의 중기전략달성과 미래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CJ는 인사와 동시에 지주사 조직도 재편했다.

지주사 핵심 기능을 ▲그룹사업포트폴리오 견고화(포트폴리오전략그룹) ▲미래전략수립(미래기획그룹) ▲전략적

사업지원(전략지원그룹·준법지원그룹) ▲인재·문화 혁신(HR그룹)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능별로 흩어져 있던 유사 조직을 ‘그룹 단위’로 통합했다.

이는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의사결정을 단일축으로 모아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글로벌 확장과 신사업 추진 등 CJ의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구조 최적화와 미래 전략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그룹 경영리더 승진자 명단〉

- ◇ CJ제일제당△김성호 신승훈 임건호 장나윤 정준영 정효진 최윤석 한지호
- ◇ CJ대한통운△강용준 고영호 김수현 김정태 박진영 이기상 정인지
- ◇ CJ올리브영△김도영 김수주 설동민 염지혜 유아영 이은애 박성건
- ◇ CJ ENM (엔터부문)△김지영 여상근 이양기
- ◇ CJENM(커머스부문)△박희정 서진욱 한지은
- ◇ 4DPLEX△오윤동
- ◇ CJ푸드빌△오창호
- ◇ CJ프레시웨이△김유준 김의환 박성민 배병현
- ◇ CJ올리브네트웍스△전인희
- ◇ CJ주식회사△김석규 김윤기 최준우 하성중 김현아

AI산업 수익성 도마 위… “지속가능 혁명” vs “발 빼야 할때”

〈워런 버핏 등 낙관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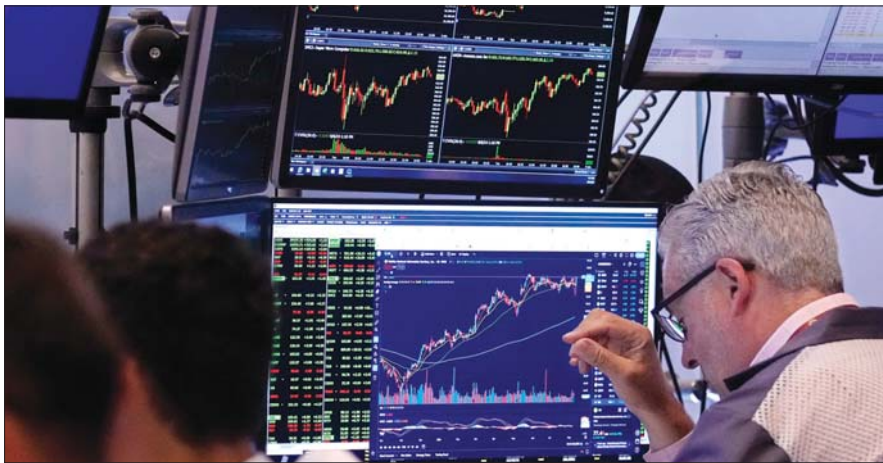
〈마이클 버리 등 비관론자〉

글로벌 투자 거장들 행보 엿갈려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관심집중
매출 전망치 549억弗… 56% ↑

“우리는 종종 거품과 마주한다. 때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승리 전략일 때도 있다”(AI 거품론자인 마이클 버리 사이언자산업운용 대표 소셜미디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2000년(닷컴버블 시기)에 일어났던 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인공지능) 버블 논란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AI에 지나치게 흥분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하면서다. 여기에 MIT 연구진이 낸 “AI 기업 95%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보고서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거품 논란 만큼 월가 큰 손들의 투자 행보도 극단적 행태를 보인다.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등 낙관론자들은 현재 AI 붐을 지속 가능한 기술 혁명으로 보고 보고 있다. 반면,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와 같은 비관론자들은 “곧 터질 거품에 불과하다”며 AI에서 발



엔비디아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뉴욕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모습. /뉴시스

을 빼고 있다.

◆ **틸·손정의·버리는 “엔비디아·테슬라, 너무 비싸다… 정점 근접”**

AI 버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다고 본다. 미증시에 기술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현재 S&P 500 시가총액 34%가 기술 부문인데, 2000년 3월(33%)과 맞먹는 수준이다.

과열은 피치북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벤처캐피털 투자 절반가량이 AI 스타트업에 집중됐다.

미시간대 에릭 고든 교수는 “닷컴 버블 붕괴 때보다 더 많은 투자자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라클 등 일부 빅테크의 신용부도스왑(CDS) 거래는 수십억달러대까지 치솟고 있다. A

I 투자 속도가 실적 불확실성과 신용 리스크를 자극하고 있다는 의미다.

AI와 거라두기를 하는 큰 손들도 있다.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는 최근 엔비디아와 필라티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득을 거두는 포지션에 베팅했다. 공시를 보면 억만장자 투자자인 피터 틸이 운영하는 헤지펀드 틸 맥크로는 지난 분기에 보유하고 있던 9400만달러(약 1375억원) 규모의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버리는 “이들 기업 주가가 이익 현실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라티어·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은 3분기에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규모는 1억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테슬라 지분도 기존 27만여주에서 6만주 수준으로 크게 축소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도 최근 엔비디아 지분 8조원 규모를 모두 처분했다. 다만 오픈AI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어 ‘AI 회의론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 **버핏·피셔·드러켈밀러 “AI는 구조적 변화… 오히려 지금 구매”**

AI 버블론에 반대하는 쪽 주장의 핵심은 ‘수익’이다. 현재 AI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기술 혁신이고 실제로 돈을 벌어들여 준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약속’만 무성했던 닷컴 버블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주가수익비율(PER)이 50배 넘었던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 현재는 20~30배로 낮은 편이다. 또 닷컴 버블 시대는 검증되지 않은 벤처가 투자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상당수는 수익을 내지 못한 채 현금만 소진했다. 반면 AI 시대를 이끄는 M7은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막대한 현금 흐름과 실제 수익도 만들어내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AI버블은 단지 새로운 기술 혁명이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대가들도 있다. 이들은 단기 모멘텀보다 “AI는 최소 10년 지속될 구조적 혁신”이라는 장기 방향성에 더 무게를 둔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발표한 10년 전망에서 AI와 신흥시장을 핵

심 메가트렌드로 규정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워런 버핏이다. 버크셔해셔웨이는 이번 분기 애플·BoA 지분을 줄였지만 알파벳 A클래스 주식은 약 43억달러(약 6조원3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입했다. 켄 피셔도 3분기에 알파벳 A클래스를 83만7893주 순매수하며 비중을 키웠다. 동시에 회사채 비중을 줄이고 미 국제 ETF로 이동해 ‘AI 베팅 + 리스크 방어’ 전략을 취했다.

헤지펀드 대가 스탠리 드러켈밀러는 아마존 9600만달러, 메타 5600만달러를 추가 매입했고, 9월 상장한 블록체인 결제 기업 피겨테크놀로지(FIGR)에 7700만달러를 투자했다. MSCI 이머징마켓 ETF(EEM)에도 1억달러 넘는 신규 포지션을 열어 AI·가상자산·신흥시장을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을 구현했다.

이제 전세계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눈은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으로 향하고 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경우 ‘AI 버블’ 논란을 잠재우고, 전세계 증시를 한단계 더 밀어 올릴 수 있지만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가 나온다면 AI산업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엔비디아 분기 매출 전망치는 549억달러(약 80조원)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준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1면 ‘韓 AI·수소·방산…’서 계속

“변동성 장세가 기회”… 개인, 반도체·빅테크 ‘줍줍’

국내·해외주식투자자들 순매수 증가
증권사, 삼성·SK 목표주가 상향 조정

직장인 이래연(46)씨는 지난 7일 삼성전자 주식 150주를 주당 9만4000원에 샀다. 1400만원이 넘는 돈이다. 그는 “10만 원 선이 깨지자 서둘러 매수했다”며 “지금 가장 싼때라는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세금을 댄 월급 실수령액 500만원가량의 절반을 삼성전자에 투자해 왔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50~200주가량 사 모으는 식이다.

‘인공지능(AI) 공포’와 주가 과열 경고도 개미 군단의 진격을 막을 순 없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틈타 ‘줍줍’ 기회로 삼고 있다. 해외시장에서도 반도체와 AI관련주를 사들이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4조 9906억원, 삼성전자를 2조2551억원씩 순매수하며 압도적으로 많이 사들였다. 이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모두 순매수한 투자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유일하다. 외국인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조6949억원, 6조2237억원씩 순매도했으며, 기관은 삼성전자 주식 6060억원어치를 털어냈다.

전문가들은 ‘AI 거품론’ 속 변동성 장세에서 장바구니를 채웠다는 분석이다.

서학개미(해외주식투자자)들도 AI와 반도체 관련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이달 들어 17일까지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빅테크, 반도체 종목들을 집중 매수했다. 메타 플랫폼스(5억5145만달러)와 엔비디아(5억1985만달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2억3197만달러), 아이온큐(1억8769만

달러), 알파벳(1억1984만달러) 등이 모두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다. 개미들은 메타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도 2억6695만달러 담았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ETF도 4억3136만달러 담았다.

개미들이 판단이 맞을까. 토비 고너먼 퓨전월드와이드 대표는 “대형 서버 제조사나 데이터센터 건설 주체들은 이제(메모리) 제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가격 프리미엄이 극단적”이라고 로이터에 전했다. 메모리칩 부족 상황이 심각한 터라 일부 고객들의 ‘패닉 바잉’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도.

KB증권은 2026년도 코스피 영업이익을 올해(약 264조원)보다 107조원 늘어난 401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증가분 중 69%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할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합산 영업이익은 15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업체 중 가장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 증권사는 전망을 더 밝게 본다. 모건스탠리는 이런 배경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재평가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14만 4000원으로 제시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입 실패와 수요확대가 이어진다면 17만50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가 73만원을 제시했다.

노무라증권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99조원으로 치솟아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 TSMC를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김동관, 방산 세일즈 외교
조주완, 현지 협력 고도화

현대차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현대차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주요기관 및 기업 등과 활발하게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IDEX 2025)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UAE를 찾은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주부터 현지서 ‘방산 세일즈 외교’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올해 상반기 중 동·북아프리카(MENA) 총괄법인을 설립하며 중동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한화시스템은 2022년 UAE에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천궁-II’ 다기능레이더를 수출한 바 있다. 이번 방산 외교를 통해 천궁-II 후속 물량을 비롯한 UAE의 중장기 전략에 맞춘 방산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사진)는 UAE 정부와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UAE에서 세계 최초 무선 OLED TV를 비롯해 세탁기, 건조기, 위시타워 등 인공지능(AI) 가전을 공개하는 등 스마트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 관계자는 “UAE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AI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비중 확대 등은 삼성, 현대차 등의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미래 산업 협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이창용 “韓, AI SW·HW 분야 모두 강해… 상대적으로 안전”

〈한국은행 총재〉

이 총재, ‘AI붐’ 지속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인공지능(AI) 산업이 강해 유리하다”면서 “AI 붐은 계속되며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존의 범용 반도체 수요도 늘어난다는 점이 한국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핀테크 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했던 싱가포르에서 BBC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최근 AI 거품론에 대해 “설령 버블이 있고, 치열한 경쟁 속에 누가 마지막 승자가 될지 알 수 없더라도, AI 붐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성능 서버뿐만 아니라 더 작고 일상적인 기기에도 AI가 적용되고, 로봇이나 생활 제품에 AI가 결합되는

피지컬AI로 확장될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기존 반도체 수요를 포함해 막대한 수요를 유발하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또 인터뷰를 통해 최근 한·무역 협상에 대해 “협정 체결이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고 평가하면서 “미국 의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제조 및 응

용기술 역량을 결합한 공동 벤처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을 사전에 앞당겨 실행한 덕분에 올해 상반기 수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더 큰 충격이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었다”면서도 “무역 긴장이 발생하기 전부터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감지되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 중심의 아시아 생산 체계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고도 언급했다.

/뉴시스

가계빚 14.9조 ↑… 주담대 증가폭 줄고, ‘카드·할부’ 확대

한은, 3분기 가계신용

잔액 1968조3000억 집계
은행·비은행 모두 속도조절
신용대출은 보험 수준 유지
계절 요인에 판매신용 늘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부채)이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주택담보·신용대출 모두 속도가 조절되는 대신, 휴가철 소비와 지방세 납부 등으로 카드·할부를 중심으로 한 판매신용이 늘어난 모습이다.

◆ 가계신용 증가폭 25.1조→14.9조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 말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말보다 14조9000억원(0.8%) 늘어난 수치다. 증가 폭은 직전 분기(2분기) 25조1000억원(증감률 1.3%)에 비해 뚜렷이 줄었다. 2024년 3분기 이후 분기별 증감액이 ▲+18조8000억원 ▲+11조3000억



17일 서울시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최근 은행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를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5년 고정금리(주거·혼합형)는 3.74~6.04%로 집계됐다. 6개월 변동금리는 3.77~5.97%로 나타났다.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6%를 넘어간 것은 지난 2023년 12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뉴시스

원 ▲+2조3000억원 ▲+25조1000억원 ▲+14조9000억원으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분기에는 다시 ‘속도 조절’ 구간에 진입한 셈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가계신용은 53조7000억원(2.8%) 증가했다. 전년 동기 증감률(3.0%)에 비해서도 다소 낮아졌

다. 절대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지만 증가세는 완만해지는 흐름이 통계에 반영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 주담대 지속 증가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 말 1845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2조원 증가했다. 2분기(+23조6000억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 중 11조6000억원 늘어 전분기(+14조4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완만해졌다. 기타대출은 2분기 9조2000억원 늘었다가 3분기에는 3000억원 증가에 그쳐 사실상 보험 수준으로 진정됐다.

국토교통부 신고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월 5만호에서 8월 3만5000호로 줄었다가 9월 5만호로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수도권·서울 역시 월별로 호수 변동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완만하게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은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감소 전환하면서 증가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 은행·비은행 모두 ‘속도 조절’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과 비은행에 금취급기관 모두 가계대출 증가 폭이 축소됐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3분기 중 10조1000억원 증가해 2분기(+19조3000억원)보다 증가 규모가 크게 줄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2분기 3조원에서 3분기 2조원 증가로 완만해졌다.

기타금융기관 등은 2분기 1조3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1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전 분기보다 증가 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가계대출이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에서 ‘속도 조절 모드’로 전환된 셈이다.

반면 카드·할부 등 판매신용은 계절 요인을 타고 확대됐다. 3분기 말 판매신용 잔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3조원 증가했다. 2분기(+1조5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커지면서, 가계대출 둔화와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한은은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 등으로 개인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늘면서 판매신용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연체율 낮아졌는데… 대환대출이 숨긴 ‘부실 그림자’

카드사 8곳 실질연체 현황

대환 포함 실질지표는 상승
명목 개선과 달리 격차 확대
부실 누적 흐름 갈수록 뚜렷

올해 3분기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건전성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듯 보이지만, 대환대출을 반영한 실질연체율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실질연체율과 명목연체율의 편차가 점점 커지면서, 대환대출의 연체율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8곳(삼성· 신한·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의 올해 3분기 평균 실질연체율이 약 1.8%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1.9%) 대비 떨어졌지만 전년 동기(1.73%) 대비 상승했다.

실질연체율은 대환대출 연체율을 포함한 보수적인 통계 수치다. 반면, 명목연체율은 대환대출 연체율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실질연체율은 항상 명목연체율보다 클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매 분기마다 실질연체율 대신 명목연체율을 발표한다.

대환대출이란 상황이 어려운 기존 채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제공해 기존 부실을 정리하는 방식을 뜻한다. 외형상 명목연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대환대출은 연체의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일 뿐 근본적 상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취급된다.

카드사들이 발표한 명목연체율만을 살펴보면, 업계 전반의 연체율은 일부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대표적으로 현대카드가 연체율 0.79%로 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하나카드는 2%에 달했던 연체율을 1.79%까지 줄였다.

그러나 금감원이 발표한 실질연체율까지 고려하면 사정은 다르다. 실질연체율과 명목연체율 간의 편차가 커지면서 명목상 건전성과 실제 부실 사이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환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여전히 누적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현대카드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실질연체율과 명목연체율의 편차는 지속적해서 벌어져 왔다. 편차는 지난

2024년 0.30%포인트(p), 2025년 1분기 0.35%p, 2025년 3분기 0.37%p까지 벌어졌다.

우리카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우리카드 실질연체율은 지난해 2.15%에서 올해 3분기 2.59%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명목연체율과의 편차도 0.71%p에서 0.79%p로 확대됐다.

롯데카드도 실질연체율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롯데카드 실질연체율은 지난 2023년 1.8%에서 2024년 1.77%, 올해 3분기 2.35%까지 상승했다. 하나카드도 올해 3분기 실질연체율 2.02%로 전분기와 직전분기 대비 모두 감소했으나 여전히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비트코인 5% 급락 7개월來 9만弗 붕괴

>> 1면 ‘AI 버블 충격에도…’서 계속

상당수는 ‘빚투’ (빚내서 투자) 개미들로 추정된다.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40조595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39조672억원)과 비교하면 1조1283억원 급증했다. 신용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104조7330억원에서 105조6274억원으로 늘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에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꺾였는데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등 신용대출 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빚내서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잔액 ↑
FOMO 확산에 투자열기 재부상
금값 약세에 시장 불안 고조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용자잔고도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용자잔고는 이달 17일 기준 26조6029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당시 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퍼졌던 ‘포도(FOMO·자기만 소외되는 두려움) 증후군’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락세를 타면서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낮 1시45분께 5% 넘게 급락한 8만9201달러까지 빠졌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4월 미국발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 7만4400달러 선까지 폭락한 이후 7개월 만이다.

금 현물 가격도 4000달러가 위협받고 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삼성전자, 2nm 공정 앞세워 파운드리 시장 재편 노린다

고객사, 삼성 2나노로 이동 가능성 ↑
GAA 기술·단가 경쟁력 재부상 관측

대만 TSMC의 첨단 공정 가격 인상 방침에 따라 제품 공급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를 대안 파운드리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2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을 중심으로 파운드리 시장 재편 기회를 노리는 모양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TSMC가 주요 고객사들에게 5nm 이하 공정으로 생산되는 칩 가격을 8~1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퀄컴이 TSMC에 위탁 생산키로 한 신형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

P)인 ‘스냅드래곤8 엘리트 젠5’의 공급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해당 칩에 탑재되는 2nm 웨이퍼 가격은 3nm 웨이퍼 가격보다 최소 50%이상 높다. 이로 인해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삼성 갤럭시S26 시리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따른다. 당초 갤럭시S26에는 삼성전자가 자체 조달하는 ‘엑시노스2600’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모델에는 퀄컴이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 부담에 따라 주요 고객사들이 TSMC의 대안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기준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72%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TSMC는 애플·엔비디

아 등 대형 고객을 중심으로 3나노 라인을 운영 중인데 첨단 공정은 이미 풀가동에 근접해 신규 물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라인과 가격 유연성을 확보한 삼성전자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로 테슬라는 차량용 반도체 칩 ‘AI5’ 생산을 TSMC와 삼성전자에 이원화했고 삼성전자는 차세대 AI6 칩 전체 물량을 수주해 165억달러(한화 약 23조원) 규모 공급 계약을 따낸 바 있다.

삼성전자는 TSMC 대비 경쟁력 있는 단가와 2나노 공정 생산성을 통해 수주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3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2나노 1세대 게이트올러라운드(GAA) 공정은 3나노 2세대 대비 성능 5%, 전력 효율 8%

개선되고 면적은 5%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세계 최초로 3nm에 GAA 공정을 적용했지만 초기 수율 부진을 지적받아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 경험을 축적해 온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TSMC도 2나노부터 GAA 공정을 도입하나 처음 도입하는 만큼 기술력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최근 암호화폐 채굴 장비 제조업체인 마이크로비티, 가나안과 2nm GAA 칩 주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들 물량은 삼성 전체 생산 능력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2나노 공정의 성공 여부가 향후 파운드리 경쟁력은 물론 실적 개선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두근두근

❤️ 두근두근 프로젝트 #3

인생의 2막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새로이 펼쳐질 인생,
든든한 미래의 설계까지
시니어금융을 맞이하는 당신을 위해

BNK금융그룹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씬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李 대통령, UAE와 ‘AI·보건·문화’ 등 미래전략 협력 확대

韓-UAE 정상회담

양국, 전통적인 경제협력 넘어
‘포괄적 특별 동반자 관계’ 발전

핵연료·정비, AIDC 구축 등 논의
UAE 대상 韓 입국 간소화 검토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양국 협력을 기존의 4대 축인 투자·방위·원전·에너지에서 한 단계 확장해, 인공지능(AI)·첨단기술·보건·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넓히고 있다.

이날 한-UAE 정상회담에서도 해당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선 이대통령이 언급한 투자·방위·원전·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첨단기술·보건·문화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관련 성과도 있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보다 먼저 UAE를 방문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등, 방산 협력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AI 분야 중심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UAE 국영일간지알이티하드와의 인터뷰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이러한 방향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경제협력을 넘어 신뢰와 공동의 의지에 기반한 ‘포괄적 특별 동반자 관계’로 발전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순방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첫 중동 방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양국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핵연료·정비 분야 협력, UAE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 한국 의료서비스 허브 설립 등 구체적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며 “한국은 세계적 문화강국이고, UAE는 중동의 문화·관광 허브로서,

양국은 문화 분야에서도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이 AI·반도체 분야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혁신적인 한국 반도체 스타트업들(리벨리온·퓨리오사AI 등)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UAE의 미래 전략과도 시너지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문화·교육·관광교류 측면에서는 UAE를 ‘한국인에게 중동에

서 가장 중요한 여행지’라면서 UAE를 대상으로 한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UAE는 한국의 중동 내 유일한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서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며 “UAE는 한국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신뢰하여 세계 최초로 한국형 원전 4기를 수입했고, 한국은 지난 15년간 총 4000명의 파병을 통해 UAE와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양국이 서로의 안보를 존중하며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오전 11시쯤 아부다비 숙소에서 의전차량을 타고 대통령궁으로 향했다.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양국 국기와 함께 나타를 탄 환영단이 도열했다.

UAE 측의 전두기가태극기를 연상케 하는 형형색색 연무를 뿌리며 대통령궁을 선회했고, 이 대통령이 대통령궁에 들어서자 의장대와 전통 의상의 여성들이 맞이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궁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자 무함마드 대통령이 직접 영접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내란가담자 조사 취지” vs 野 “공무원 사찰 TF”

‘헌법존중 정부혁신TF’ 공방

與 “내란 가담 의심 받는 경우 한정”
野 “인권침해 소지… 헌법 위반”

여야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TF를 두고 ‘공무원 사찰 TF’라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가담자를 조사하려는 취지라며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저희 당은 공무원사찰TF라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 부른다”며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문제로 전

전긍긍하고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데 어떻게 보느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TF라고 하는데 ‘헌법참칭 국가망신TF’, ‘숙아내기TF’ 정도가 될 것 같다”며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을 다 위반하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위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제행위에, 폭력에 인권위가 잠잠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모든 절차는 헌법에 기초하고 법률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TF도 그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인권위의 어떠한 의사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답했다.

반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여러 가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앞으로 인사의 원칙상, 헌법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백승아 의원은 “(국민의힘은) 헌법존중TF를 말하면서 ‘숙아내기TF’라고 (지칭)하고, 이재명 정부가 조사할 자격이 있느냐고도 했는데 원인제공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라며 “(애초) 왜 내란을 일으켰느냐. 왜 거기에 동조했느냐. 그러면 내란 가담 공무원도 안

생겼다. 본인들의 과거를 생각해서 두둔하시는 것인가”라고 맞섰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사생활털기TF라고 하는데 일반 공무원을 다 터느냐. 국민의힘은 일반 공무원 사생활을 다 터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사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조사해야 될 영역이 있다”며 “본인이 내란이나 계엄에 참가했다고 의심받는 경우에는 본인 이 땀땀하게 조사를 받아서 결백을 증명받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 대상자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답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 시점에서 조사를 안하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였다.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다. 전체 공직자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장외투쟁 공세에도 지지율 반등 없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기자회견
지지율 떨어져… 반사이익 미지수

국민의힘이 이번주 내내 오전마다 용산 대통령실, 법무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기자회견 주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다. 다만, 이러한 공세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수도권은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권에 진입할 정도로 한파가 찾아왔음에도, 전날(17일)에 이어 장외집회를 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성호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라며 “이제 대놓고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 장관은 지금 즉시 사퇴해야 되지 않겠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은 법무부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14일에 대장동을 직접 찾아 국정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주 남은 기간에도 국민의힘은 기자회견 방식의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19일과 20일에는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 앞,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21일에는 다시 법무부를 찾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를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서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항소 포기가 부적절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총공세를 해도 해당 이슈가 정부여당의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만 떨어지고 있다. 관련 이슈로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가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

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3%에서 59%로 4%p(포인트) 하락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공방이 이어지며 부정평가 이유 항목에 ‘대장동 사건’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논란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같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2%, 국민의힘은 2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 2%p 올랐고, 국민의힘은 2%p 떨어졌다. 이 조사결과에서 눈여겨볼 점은 무당층 응답 비율이다. 무당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2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당층보다도 낮은 것이다.

또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54.5%로 직전 조사보다 2.2%p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0.2%p 오른 46.7%, 국민의힘은 0.6%p 떨어진 34.2%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이후 ‘이재명 탄핵’ 등 강경 공세를 펼치자 오히려 결집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도한 대응이 TK(대구경북) 및 보수층에게 정치적 피로를 야기해 핵심 지지층 일부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11~13일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무선 100% RDD 방식으로 진행했고, 정당 지지율 조사는 13~14일 같은 방식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정당 지지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합(合)에서 답(答)을 찾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전술은 완성됩니다.

기존의 에너지는 토대가 되고
새로운 에너지는 동력이 됩니다.

서로의 힘을 합해
전에 없던 에너지의 답을 내놓습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정책 방향 변경’… 이창용 총재, 직설화법에 금융시장 출렁

〈한국은행〉

외신 인터뷰 한마디에 시장 요동
금리인하·전환 모두 가능성 열어

국채선물 매도 확대·증시도 흔들
직설 화법, 채권시장 변동성 키워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한마디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직설적이고 선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얼마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국고채 금리와 환율, 주가를 동시에 흔들었다. 불과 한 달 전, 이 총재의 직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전임 총재들보다 채권시장 변동성을 크게 키운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블룸버그TV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값이 마이너스인 만큼 한은의 공식 입장

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금리 인하의 폭과 시점, 혹은 정책 방향의 변경이 있을지는 앞으로 나올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메시지만, 시장은 ‘정책 방향의 변경’이란 표현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넘어 경우에 따라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번졌다.

직전까지 한은의 기조는 “경기 둔화·마이너스 성장 껍을 감안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추가 인하는 지표를 보며 판단하겠다”는 정도였다. 이번 발언은 여기에 ‘필요하면 방향을 다시 틀 수 있다’는 단서를 명시적으로 붙인 셈이다. ‘인하 폭·시기’를 데이터에 연동하는 수준을 넘어, 통화정책의 방향 자체(완화 vs 긴축)를 새 데이터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지점이다.

바로 다음 날 채권시장은 ‘총재의 발언’을 가격에 반영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장중 연 3.3%를 돌파해 연고점을 경신했고, 3년물 금리 역시 2.9%를 넘어 연중 최고를 새로 썼다. 3년물·10년물 국채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 동안 3년물 1조5000억원대, 10년물 4000억원대에 이르는 순매도에 나섰다. 채권 매각 대금이 달러로 옮겨가자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뛰었다. 주식시장 역시 외국인 매도가 확대돼 조정을 받았다.

불안이 확산되자 한은은 “평소와 같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리 인하의 시기·폭과 완화 기조 유지 여부를 종합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일 뿐”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도 “국채 금리 급등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동참했다.

‘이창용의 입’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한은 경제연구원 학

술지 ‘경제분석’에는 이 총재의 기자회견 담회 발언이 전임 총재들보다 채권시장 변동성을 더 크게 키운다는 연구가 실렸다.

서울대 유각준 교수·성균관대 조두연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기준금리 결정 직후 기자회견담회와 금융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성태·이주열 전 총재와 이창용 총재 재임기에는 기자회견담회 중 채권시장 변동성이 평상시보다 7~15배 확대됐다. 반면 김중수 전 총재 시절에는 4배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이창용 총재 시기에는 변동성 자체가 컸을 뿐 아니라 매파·비둘기 성향의 어조 변화가 금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보고서는 “이전 총재들과 달리 이 총재의 명확하고 직설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비트코인, 7개월 만에 9만 달러 붕괴… 알트코인 ‘반토막’

지난달 최고가 기록 대비 28.8% ↓
트럼프 가상자산 정책 기대감 하락
반감기 맞물린 추세적 하락 분석도

지난달 1BTC당 12만6000달러까지 상승했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연중 최고가 대비 40~55% 하락했다.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후퇴하고 있어 서다. 업계에서는 4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와 맞물린 가격 하락이란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18일 오후 2시께 1BTC당 8만9934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5.54% 급락한 가격으로, 지난달 7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12만6198달러)와 비교해 한 달여 만에 약 28.8% 하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해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거듭하며 7개월 만에 9만 달러선이 붕괴한 18일 서울 강남구 빙점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7일 오후 10시 30분(미 동부 시간·한국 시간 18일 오후 12시 30분)께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65% 급락한 8만999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기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낙폭은 더 컸다. 1ETH당 4953달러까지 올랐던 이더리움(시총 2위)은 한 달여 만에 약 40% 하락해 3000달러 아래로 내렸고, 리플(XRP·3위)은 44.7%, 바이낸스(BNB·4위)와 솔라나(SOL·5위)는 각각 34.7%, 55% 하락했다. 강제 청산(선물 거래 시 위험 노출 자산

이 강제 매도되는 것)도 빈발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는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 원동력이 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잦아든 영향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에 앞서 ‘친(親) 가상자산’ 대통

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9월 초 1BTC당 5만9000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빠르게 상승했고,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사상 최초로 9만달러를 돌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을 비축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지니어스법, 가상자산의 규제 기관을 명확히 한 클래리티 법,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개입을 막는 반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법 등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주요 법안도 입안했다.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지난달 미 연방정부의 섣다른(업무일 시정지) 이후 트럼프의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잦아들고 있다. 로이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은 약 40%로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공화당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임기 중반부터 ‘레임덕(권력 누수)’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하락이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맞물린 추세적 하락이란 분석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발생한다. 앞선 4차례의 반감기(2009년·2012년·2016년·2020년)에서는 반감기 직후 1~2년에 걸친 가파른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이후 가격이 70~90%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최근의 반감기는 2024년 4월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 구간에 진입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자산운용의 맷 후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사람들은 (반감기와 맞물린 상승·하락의) 4년 주기가 반복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자산가치가 지금보다) 50% 추가로 하락하는 상황을 겪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면서 “시장심리가 나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에는 반등장이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삼성물산, ‘래미안 원페를라’에 AI 주차장 첫 적용

입주민 평소 주차 데이터 분석
거주동과 가까운 곳 추천·안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양배6 재건축)’에 ‘래미안 AI 주차장’을 최초로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6일 입주가 시작되는 래미안 원페를라는 총 1097세대,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4층이다. 일반 주차 1902면, 전기차 충전 구역 101면으로 세대당 1.8대 주차 가능하며, 래미안 AI 주차장을 통해 더 효율적

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래미안 AI 주차장은 일반적인 아파트 주차장에 구축되는 주차 관제, 주차 유도,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통합 연동해 최첨단 AI 기술과 결합, 입주자에게 차원이 다른 주차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물산이 적용한 최첨단 AI 기술은 ▲AI 주차 서비스 ▲AI 전기차 충전 서비스 ▲AI 주차 관리 서비스로 나누어져 제공되며, 입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AI 주차 서비스는 입주민의 평소 주차 데이터를 분석해 선호하는 주차 위치나 거주동과 가까운 곳으로 추천·안내한

다. 방문차량의 경우 사전 예약된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하는 동까지 최단 경로와 최적의 주차 위치를 제공한다.

AI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입차시 최적의 충전 위치로 안내하며,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입주민을 인증하고 충전 요금은 관리비에 합산된다. 특히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불꽃감지센서 일체형 CCTV가 설치됐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입주민들이 최상의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도록 최첨단 AI 주차장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금융, MSCI ESG평가 ‘AAA’ 획득

KB금융그룹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2025년 MSCI ESG 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4회 연속 최상위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MSCI ESG평가는 세계적인 투자 연구 기관인 MSCI에서 매년 전 세계 약 85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ESG 평가지표 중 하나다. MSCI는 AAA(최고)부터 CCC(최저)까지 총 7단계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KB금융은 이번 평가에서 ‘기업 지배 구조’, ‘환경영 금융’, ‘인적자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등 주요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내 금융사 중 유일하게 ‘AAA’ 등급을 4회 연속 획득함으로써 국내외 최고 수준의 ESG 경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은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축한 안정적인 지속가능경영 체제 ▲‘KB 그린 웨이브(Green Wave) 2030’ 전략을 통한 녹색·전환금융 확대 ▲ISO 27001·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KB금융이 전 계열사와 함께 ESG경영 실천을 강화해 온 점을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불확실성 돌파 해법 ‘기술혁신’ 현장·연구소 원팀으로 속도전”

포스코그룹, 테크포럼 개막

장인화 회장 “디지털 혁신 가속화”
AI기반 공정혁신 성과확산 지속
철강·양극재 핵심기술 강화 박차

포스코그룹은 18일부터 이틀간 그룹 최대 기술 축제인 포스코그룹 테크포럼(Tech For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개회사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기술 혁신”이라며 “현장과 연구소가 모두 참여하는 원팀(One-Team)형 초격차 대형 과제를 추진해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혁신 기술로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사업에서의 자원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글로벌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혁신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직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해 모든 현장에서 AI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포스코그룹 테크포럼은 그룹 핵심 사업의 주요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1989년 시작해 올해로 37회째를 맞



18일 포스텍에서 열린 2025년 포스코그룹 테크포럼에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는다. 포항공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장인화 회장을 비롯해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기술 분야 임직원 1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술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발굴·격려하는 ‘포스코 기술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올해 기술대상은 혁신상, 창의상, 도약상, 도전상 등 총 15건이 선정됐으며, 최고상인 ‘올해의 혁신상’은 포항제철소 제강부와 포스코퓨처엠 양극재연구센터가 수상했다.

포항제철소 제강부의 ‘제강 전(全) 공정 자율 조업 기술’은 기존 제강 공정에서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AI를 활용해 100% 자동화한 것으로, 작업자별 편차를 줄이고 전체 작업 소요 시간도 종전 대비 약 10% 단축했다. 포스코퓨처엠 양극재연구센터의 ‘전구체 연속식 순환 농축 공정 양산화 기술’은 신(新)공정을 개발·도입해 가공비를 낮추는 동시에 공정 생산성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포스코그룹은 이틀간 25개 기술세션을 운영한다. 기술세션은 내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우수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는 로봇 기술과 핵심광물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포스코그룹은 장 회장 취임 이후 혁신 기술 개발에 그룹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며 ‘초일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특히 2코어+뉴엔진(철강·배터리 소재와 신사업) 전략에 맞춰 필요한 기술을 사전에 선싱하고, 시장과 현장의 요구를 적기에 기술로 구현하는 코퍼레이트 R&D(Corporate R&D)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석화업계, 업황 부진에 R&D 축소 ‘스페셜티’ 전환 지연 가능성 제기

롯데·한화 등 R&D 감소… LG만 확대
중국 증설로 범용 구조 취약성 심화

국내 석유화학사들이 업황 부진과 현금 흐름 악화로 연구개발(R&D) 지출을 줄이고 있어 미래 기술 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의 증설 확대와 범용 제품 중심 구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스페셜티 전환까지 지연되면 경쟁력 악화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의 올해 3분기 누적 연구개발비는 1016억원으로 전년 동기(1139억원) 대비 10.8% 감소했다. 한화솔루션도 같은 기간 1562억원에서 1473억원으로 5.8% 줄었고, 금호석유화학 역시 433억원에서 417억원으로 3.7% 감소했다. 반면 LG화학은 올해 3분기 누적 R&D 비용이 1조773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6038억원) 대비 10.6% 증가하며 국내 4대 석유화학사 중 유일하게 투자를 확대했다.

이 같은 투자 축소는 수익성 악화로 기업들의 R&D 투자 여력이 없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업체들의 3분기 실적이 개선된 듯 보였지만 이는 원료 가격 하락에 따른 스프레드 확대 효과가 반영된 데 불과해 구조적 업황 회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중국의 예

틸렌 생산능력은 약 2500만톤(t) 증가했으며 향후 3년가량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증설이 예정돼 있다. 내수 기반을 갖춘 중국은 대형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범용 제품 비중이 높아 공급 과잉 시기마다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정밀화학·스페셜티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 현재 스페셜티·비화학제품 매출 비중이 60%를 넘는 구조를 구축했다. 반면 한국은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 범용 제품 비중이 여전히 50~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업들이 스페셜티 비중 확대, 원가 절감, 공정 효율화,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 복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업황 부진으로 인해 R&D 재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 이어지고 있다. 스페셜티 제품은 개발 기간이 길고 초기 비용 부담도 큰 만큼 업황 회복 속도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 여력이 달라질 수 있어 시장 흐름에 맞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관희 기자 wkh@

KAI, KF-21 중심의 차세대 전투기 수출전

‘UAE 두바이 에어쇼’ 참가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17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중동 최대 전시회인 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해 마케팅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986년에 200개 업체와 25대의 항공기로 첫회를 시작한 두바이 에어쇼는 '23년 기준 1500여개의 항공 및 방산 업체가 참가, 200여대의 군용 및 상용 항공기들을 전시하고 15만명의 참관객이 모이는 MENA(Middle East & North Africa) 지역 최대 규모의 에어쇼로 성장했다.

KAI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마케팅을 집중 부각하고 기존 추진사업 재추진 모멘텀을 위해 FA-50, 수리온, LAH 등 주력기종 전시와 초소형 SAR 위성 등 미래사업과 K-스페이스 라인업을 선보인다.

또한 KAI는 지난 ADEX에서 공개한 AI 파일럿을 탑재한 'KAILOT', UCAV, APP 등 무인기들과 KF-21을 필

두로 하는 미래전장의 핵심 유무인복합체계를 제시하고 마케팅을 진행중이다.

UAE 전략적 파트너로 KAI와 협력 가능성이 큰 국가로 향후 K-방산 수출의 중동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KAI는 UAE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첨단 항공기 개발 기술 교류 등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특히, UAE 공군은 지난 4월 KAI 본사를 방문하여 KF-21 등 생산시설을 견학했고 알사흐란 알누아이미 UAE 공군전투센터 사령관은 KF-21을 직접 탑승한 바 있다.

KAI는 KT-1, T-50은 다목적 항공기로서의 장점과 높은 가동률로 주요 이라크, 튀르키예, 세네갈 등 일부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도입하여 운용중에 있고 지난해 이라크와 KUH 2대 계약해 국산헬기 첫수출을 달성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LG, AI 기반 프리미엄 환기 솔루션 선포

H14 헤파·UV 살균 적용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 실내 오염원 감지 기능과 강화된 공기 정화 성능을 갖춘 가정용 환기시스템 'LG 프리미엄 환기 PLUS'를 출시하며 스마트 환기 솔루션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외부 공기를 정화해 들이고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배출하는 환기시스템에 AI 공기질 분석 기능을 적용한 신제품 '프리미엄 환기 PLUS'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기밀성이 높은 주거 공간에서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려는 수요를 반영했다.

신제품은 공기 변화를 실시간 감지하는 'AI 공기질 센서'를 탑재했다. 포름알데히드·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 AI가 학습한 다양한 오염원을 정밀 분석해 오염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환기하거나 풍량을 높여 공기질을 빠르게 개선한다.

바깥 공기가 좋을 때는 '자연바람 환기', 실내 미세먼지만 제거할 때는 '실내 순환' 등 상황별 환기 모드도 제공한다.

정화 성능도 강화됐다. UV 나노(UV nano) 기술로 세균·바이러스 증식을 99.99% 억제하며, H14 등급 헤파 필터는 초미세먼지를 99.995% 이상 제거한다. 매연 특화 필터는 이산화질소·이산화황 등 유해가스를 줄여 도로 인접 주거지에도 적합하다.

전열교환기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여름철에는 외부 공기의 열을 낮추고 겨울철에는 차가운 공기를 데워 KS 기준 냉방 시 62~68%, 난방 시 75~82%의 에너지를 회수해 냉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

천장형 공기 출입구 '디퓨저'는 공간별 오염도에 따라 자동 개폐돼 필요한 곳에만 집중 환기한다.

/정희준 기자 nauta@

삼성중, ORC 폐열회수 시스템 해상 실증

HMM·파나시아와 MOU 체결

삼성중공업이 HMM 등과 손잡고 자체 개발한 유기 랭킨 사이클(ORC) 기반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ORC 폐열 회수 시스템)의 해상 실증에 나선다.

삼성중공업은 HMM, 파나시아와 ORC 기반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 해상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ORC는 물보다 끓는점이 낮은 유기 열매체를 사용해 선박에서 버려지는 폐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삼성중공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해상 실증에 돌입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가변 압력 방식 ORC 폐열 회수 시스템'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조건의 중·저온

(70~300℃) 폐열을 최대한 회수해 전기로 전환하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이다.

기존 선박에 주로 적용되는 스팀 방식 폐열 회수 시스템은 고온(300~600℃) 폐열만 활용할 수 있어 중·저온 폐열은 사실상 버려지고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해상 실증에 앞서 육상 실증을 마쳤으며, 지난 5월 미국 선급 ABS로부터 관련 기술 인증도 획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삼성중공업·HMM·파나시아 3사는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HMM이 운항 중인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에 250kW급 ORC 폐열 회수 시스템을 탑재해 실증 운항에 나선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서울 중구 장충동에 본사를 둔 태광그룹 4개 계열사 태광산업·대한화성·티시스·티알엔 임직원들이 18일 지진 상황을 가정한 전사적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태광그룹

태광그룹, 4개 계열사 공동 지진대피 훈련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18일 지진 상황을 가정한 전사적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태광산업, 대한화성, 티시스, 티알엔 등 장충동 소재 4개 계열사 직원 4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 시 임직원의 안전 확보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민관 합동 훈련 형식으로 서울 중구청이 전체 훈련을 주관했으며 소방서는 화재 진압·구급·구조 시뮬레이션을, 경찰서는 현장 안전관리를 각각 지원했다.

훈련은 ▲지진 초기 대응 및 전파 절차 ▲대피 훈련 ▲환자 구조 ▲화재 진압 순으로 진행됐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 전 직원이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기반으로 구성했으며 대피 훈련 종료 후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교육도 실시했다.

/양성운 기자 ysw@

회장·대표·직원 한자리… 도전과나눔, 조찬포럼 새 지평

‘기업가정신 포럼’ 80회 돌과
법인·개인 등 유료회원 증가
핵심 성공 비결 ‘나눔테이블’

‘통찰력, 차별화, 시의성, 변화, 배움
그리고 나눔.’

친목만을 위한 조찬모임은 거부한다. 가면 반드시 듣는게 있고 꼭 배우는게 있다. 굶주린 배는 물론이고 지혜에 목마른 머리와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서 나오는 조찬 포럼이 있다.

(사)도전과나눔이 협회나 단체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최고경영자(CEO) 조찬 포럼을 7년째 묵묵히 진행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18일 도전과나눔에 따르면 ‘기업가정신 포럼’은 2018년 7월 첫 행사를 연 이후 현재까지 80회를 훌쩍 넘겼다. 개인·법인등 순수 유료회원도 500명을 넘어서며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들었다.

매달 셋째주 수요일 오전 7시를 전후해 조식을 시작으로 여는 조찬 포럼은 매회마다 300여 명이 참석하며 문전성시다. 어떤 때는 준비한 자리와 식사가 모자라 긴급 조달해야 할 때도 많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은 “7년 등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왼쪽)이 지난 9월에 열린 80회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강연자인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도전과나눔

안 포럼을 운영해보니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AI를 중심으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업도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보니 변화를 열망하는 CEO나 2세 경영자, 스타트업을 창업한 젊은 대표 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업가정신 포럼에는 현재 12명의 기업인이 후계자인 자녀와 함께 참석해 자리를 채우고 있다. 또 무기명으로 2인이 참석할 수 있는 법인회원의

경우 대표가 바쁜 일정 때문에 포럼에 불참해도 일반 직원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참석 직원들은 포럼에서 경영자가 된 듯한 경험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임직원들의 포럼 참여가 조직문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응도 많다”고 말했다.

게다가 KTC, 화이버텍, 삼구아이앤씨, W쇼핑 등 20여개 기업은 적게는 4명부터 많게는 10명까지 임원진이 함께 참여해 조찬포럼을 사내 리더십 회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기업들이 포럼을 ‘교육 복지’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가정신 포럼의 성공 비결 중 핵심은 ‘나눔테이블’이다. 이는 성공한 기업인 선배가 스타트업 등을 창업한 후 배들의 조찬 참가비를 후원하는 전통으로, ‘도전과나눔’ 법인명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첫 테이프는 삼성그룹 비서실장, 삼성물산 회장, 한국마사회장 등을 역임한 현명관 회장이 끊었다. 현 회장은 포럼 초기에 제주 출신 스타트업 8명을 지원했다.

나눔테이블은 이후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 이윤재 전 지누스 회장, 한재권 조인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회장 등 선배 기업인들의 동참이 이어지며 현재까지 800명이 넘는 후배 기업인들이 함께 했다.

19일 아침 예정된 82회 포럼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의 ‘데이터와 정책으로 분석해 본 2026 부동산 대전망’과 한양대 백서인 교수의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중국 기술 제조 굴기의 실체를 해부하다’는 주제로 펼쳐진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보

‘기술혁신형 M&A’ 첫 성과

안국약품-디메디코리아 계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민관협력 인수 합병플랫폼(M&A 플랫폼)을 통해 ‘기술혁신형 M&A 계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나왔다.



기보는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안국약품과 헬스케어분야 중소기업인 디메디코리아가 M&A 플랫폼으로 기술혁신형 M&A 중개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안국약품이 M&A 플랫폼에 매수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됐다. 기보는 플랫폼에 참여한 인터캐피탈과 트너스와 안국약품을 매칭하고 전문 자문서비스를 연계했다. 그 결과 디메디코리아와 안국약품 간 M&A 계약이 성사됐다.

기보는 이번 성과에 대해 별도의 보증 지원 없이 플랫폼의 중개·자문서비스 제공만으로 성사된 첫 번째 M&A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사진)은 “이번 계약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중견기업의 경영 역량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술혁신형 M&A를 적극 지원해 국내 벤처 회수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첨단 섬유도 전략 자산… 방산분야 등 국산소재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2차 섬유산업위원회’
국산 섬유 소재 활성화 전략 등 논의

국가안보와 산업보호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국방 분야에서 섬유 등 국산 소재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국산 군수품 우선 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섬유산업위원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권기 가방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포함해 이성수 한국제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석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22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국방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 활성화와 전략, 방위사업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현행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존재하는데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권기 위원장 겸 가방공업협동조합 이사장(앞줄 왼쪽 5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것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윤철 수석연구원은 “현대전에서는 미사일 등의 무기 체계뿐 아니라 방탄복 등 전력 지원 체계의 기술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방 품목에서 국산 소재 사용을 늘리는 것은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투복, 방탄복 등 피

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섬유는 정보통신 기술(ICT) 융합 기술, 쾌적성 부여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기능성 소재”라며 “이들 기술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면 지속적인 국내 기술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국산 소재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섬유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섬유산업진흥특별법’ 제정 등이 언급됐다.

김권기 위원장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섬유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이 앞장서 국내 수요 확대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내외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현시점에서 국방 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국가 안보 강화와 동시에 섬유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 기업, 3년간 재신청 제한

정부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이란 대표가 장애인이거나 전체 임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30% 이상(중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하며, 강화한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비렉스 루나 프레임’ 출시

코웨이가 우아한 디자인에 현대적 고급스러움을 더한 ‘비렉스(BEREX) 루나 프레임’ (사진)을 출시했다.

18일 코웨이에 따르면 비렉스 루나 프레임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세련된 침실 인테리어를 구현해준다. 곡선미를 살린 헤드보드가 클래식한 감성을 자아내며 헤드보드 테두리는 원단을 등글게 말아 처리한 파이프 장식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높였다.

신제품은 매트리스를 받치는 하부 파운데이션에 스프링이 탑재된 투매트리스 타입이다. 파운데이션이 매트리스에 가해지는 하중과 충격을 한 번 더 흡수함으로써 신체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사이즈는 슈퍼싱글부터 킥, 킹, 라지킹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춰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취향, 가족 구성에 맞게 단독·트윈·연속 등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한국인의
패스트 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 푸드로

| 리아 새우 |

| 리아 불고기 |



TASTE THE FUN
LOTTERIA™

합병 지연 ‘티빙·웨이브’… 先 실질통합으로 시너지 낸다

양사 합병 본계약 내년 가능성 커져
CJ ENM, 3분기 분기보고서에서
콘텐츠웨이브 연결 종속회사 포함
비용 효율화 등 실질 통합효과 기대

티빙(TVING)과 웨이브(Wavve)의 합병 본계약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CJ ENM이 콘텐츠웨이브를 연결 종속기업으로 편입하며 사실상의 통합 경영 체제 구축에 나섰다. 법적 합병 절차는 주주 간 이해관계 조율로 지연되고 있지만, 회계 및 운영단에서는 이미 ‘한 몸’ 만들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CJ ENM은 3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지난 분기부터 웨이브 운영사인 콘텐츠웨이브를 연결 종속회사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웨이브 이사회 구성원 과반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티빙과 웨이브 로고. 두 기업의 합병 본계약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각사

반면 기존 웨이브의 최대주주였던 SK스퀘어는 지난 9월 공시를 통해 콘텐츠웨이브를 자회사에서 제외했다. SK스퀘어는 3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 주주와의 약정으로 이사회 통제력이 제한됨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사의 통합 작업은 ‘선(先) 실질 통합, 후(後) 법적 합병’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콘텐츠웨이브는 지난 8월 CJ

ENM 출신인 서장호 전 콘텐츠유통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며 인적 융합을 시작했다. 서비스 차원에서도 6월 티빙·웨이브 결합 요금제 도입에 이어 9월에는 통합 광고 플랫폼을 공동 출시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배력 편입은 향후 통합 OTT의 회계, 투자, 콘텐츠 전략을 단일 체계 하에서 판단하겠다는 신호”라며 “공식 합병 전이라도 비용 효율화 등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작 합병 법인 출범을 위한 ‘마지막 도장’은 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지난해 12월 MOU 체결과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까지 받아냈음에도, 합병 비용과 주주 권한을 둘러싼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분율 13.54%를 가진 티빙의 2대 주주 KT(kt스튜디오지니)의 마온적인 태도가 막판 변수로 꼽힌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KT는 CJ ENM과 SK스퀘어에 밀려 3대 주주로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 1위 IPTV 사업자인 KT 입장에서 거대 OTT의 탄생은 자사 IPTV 가입자 이탈(코드커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CJ ENM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이어진다. 이종화 CJ ENM 경영지원실장은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에 준하는 운영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합병 시기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양사는 넷플릭스 독주 체제를 견제할 ‘토종 메가 OTT’ 출범을 목표로 연내 합병을 추진해왔으나, 합병 지연이 길어지며 티빙의 재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CJ ENM에 따르면 티빙은 올해 3분기 매출 988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은 162억 원으로 전년 동기(71억 원) 대비 적자 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가입자 성장 정체와 콘텐츠 투자 비용 부담 속에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회계상 편입을 넘어 물리적 결합이 이뤄져야 중복 비용 절감 등 확실한 합병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주주 간 쟁점이 복잡하더라도,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조속한 합병 마무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T 차기 대표에 33명 지원… 연내 선정

인선자문단, 외부 전문가로 구성
내년 정기 주주총회서 최종 선임

KT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과 사내 후보, 전문가 추천을 포함해 총 33명의 후보로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 ▲산업 ▲리더십·커뮤니케이션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



서울 종로구 KT 본사의 모습.

/뉴시스

성된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선자문단은 사내의 대표이사 후보군에 대한 서류 평가 의견을 위원회에 전

달하며, 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대표이사 후보를 압축할 계획이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선자문단의 구체적인 구성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에 구성된 대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1인을 선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하며, 해당 후보는 2026년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이통3사, ‘PASS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PASS 앱에서 안전하게 확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모바일 인증 플랫폼 패스(PASS) 앱을 기반으로 한 ‘PASS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건강검진표, 자격 변동 안내, 환급금 신청 등 다양한 고지 문서를 PASS 앱에서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앞으로 수백 종의 종이 문서를 전자 형태로 발송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PASS 앱은 약 38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증·본인확인 플랫폼으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문서 전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PASS 전자고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증을 받은 P

ASS 인증서를 활용해 전자서명을 제공한다. 통신3사는 이를 통해 PASS 앱을 국민 일상에 더 밀착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

사용 편의성을 위해 PASS는 메인 화면에서 전자고지 메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UI·UX를 개선했다. 고지 목록 화면에서는 문서별 열람 기한을 명확히 안내하고, 미열람 문서가 있을 경우 추가 알림을 보내 중요한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푸시 알림을 항상 활성화해 사용하는 PASS 이용자 특성상 높은 열람률도 기대된다. 실제 PASS 기반 ‘국민비서’ 서비스의 필수 고지 문서 열람률은 약 55% 수준이며, 전자고지 서비스 역시 업계 평균을 웃도는 성과가 예상된다. /김서현 기자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데모버전 공개

오는 25일 정식 출시 전
핵심전투 사전체험 제공

넷마블은 글로벌 정식 출시를 앞둔 신작 액션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의 데모 버전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데모 버전은 오는 25일 정식 출시 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의 일부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미리 플레이해볼 수 있도록 준비됐다.

플레이를 원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던전 및 인스턴스로 구성된 ‘월드 콘텐츠’와 타임어택 모드인 ‘시간의 전장’을 경험할 수 있다.

넷마블은 데모 버전 공개와 함께 신규 영상을 공식 유튜브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의 전투 액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넷마블네오 김광훈 디렉터는 “트위치 콘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데모

버전을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선보이게 돼 매우 기쁘다”며 “정식 출시에 앞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의 핵심 전투를 직접 체험하며 즐겁게 플레이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기반으로 PC·콘솔 플랫폼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된 액션게임이다. 이용자들은 최대 4인이 함께 플레이 가능한 협력 전투 콘텐츠를 비롯해 ‘성진우’의 군주화된 모습으로 전투를 펼치는 ‘군주화 전투’ 등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제논, 중부발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개발

업무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등 진행

생성형 AI 솔루션 전문기업 제논은 한국중부발전의 ‘AI 에이전트 플랫폼 및 업무 자동화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중부발전 특화 AI

에이전트 플랫폼 개발 ▲업무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모바일 AI 서비스 연동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진행된다.

회사는 우선 한국중부발전 특화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개발해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폴과 연계하고,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업무 자동화 시스템은 회계 전표 작성, 일반 행정 업무와 발전·안전·경영 등 핵심 업무를 서포트한다.

제논은 한국중부발전에 구축된 기존 플랫폼의 기능과 품질 고도화도 추진한다. 그간 PC 환경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생성형 AI 서비스 ‘하이코미’를 한국중부발전의 모바일 그룹웨어에 탑재해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hjk1@

LG U+, 협력사와 ‘사랑의 꾸러미 나눔’ 행사

U+동반성장보드와 꾸러미 730개 제작

LG유플러스는 연말을 맞아 협력사 협의체 ‘U+동반성장보드’와 함께 ‘사랑의 꾸러미 나눔 시즌12’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임직원들과 동반성장보드 소속 60여 명은 17일 용산사옥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꾸러미 730개를 제작했다. 꾸러미에는 양측이 올해 모은 기부금으로 마련한 쌀, 식료품, 손난로 등이 담겼다.

U+동반성장보드는 LG유플러스와 협력사 간 소통과 제도 공유를 위한 협의체로, 장비·IT서비스·공사·디바이스 등 4개 분과의 32개 협력사가 참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사랑의 꾸러미 나눔을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준비된 꾸러미 730개는 독거노인



사진은 17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진행된 사랑의 꾸러미 나눔 행사 모습.

/LG유플러스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르신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승운 동반성장보드 의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준비한 행사인 만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언 LG유플러스 동반성장·전략구매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한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코스피·코스닥 실적 동반 성장세 수익성 개선 속 흑자 기업은 줄어

상장사 3분기 결산

영업이익·순이익 모두 증가세
이익률도 개선되며 수익성 회복
삼성전자 제외해도 성장흐름 유지

반면 흑자 기업 수는 오히려 감소
상위 중심 이익 집중… 양극화 확대

올해 3분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들의 수익성이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흑자기업은 감소세를 보이면서 기업 간 편차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8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12월 결산 법인 2025년 3분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법인 639개사(금융업, 분할·합병,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 등 70곳 제외)의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은 2299조1183억원으로 5.44%(118조5226) 소폭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79조5678억원으로 전년 동기(156조1372억원) 대비 15.01%, 순이익은 지난해 121조834억원보다 25.80% 성장한 152조3269억원을 기록하며 대폭 늘어났다.

기업들의 수익성과 함께 영업활동 능력도 개선됐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률은 7.81%, 순이익률은 6.63%로 전년 동기 7.16%, 5.55%보다 0.65%포인트, 1.



한국거래소 전경.

07%포인트씩 올랐다.

전체 매출액 비중 10.4%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과 순이익 각각 20.1%, 34.3%씩 증가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58%, 매출액 순이익률은 6.16%로 집계됐다.

수익성이 주춤했던 코스닥 상장사도 올해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1217곳(137곳 제외)의 누적 연결기준 순이익은 5조3457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5849억원 대비 16.59%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8조835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8조513억원보다 9.74% 성장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1217곳(금융업,

분할·합병,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 등 137곳 제외)의 3분기 누적 연결기준 순이익은 5조3457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5849억원 대비 16.59%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8조835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8조513억원보다 9.74% 성장했다.

다만 양대 시장 모두 흑자 기업은 줄고, 적자 기업은 늘어났다.

코스피에서는 올해 3분기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 502개사(78.56%)로 지난해 515개사(80.59%)보다 13개사(2%포인트)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3분기 누적 순이익 흑자기업은 678곳(55.71%)으로 전년 동기 710곳(58.34%)보다 32개사 감소했다. 코스닥 내 적자기업은 539곳(44.29%)으로 전체 상장사 절반에 가깝다. 374개사(30.73%)가 적자를 지속했고 165개사(13.56%)가 적자 전환했다.

더불어 코스닥150 편입기업(133곳)과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의 성과는 미편입기업들의 실적을 상회했다. 코스닥150 편입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7.40%로 미편입기업(2.91%)보다 4.49%포인트 높았으며,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8.54%를 기록하며 미편입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3.59%를 4.95%포인트 앞질렀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코스콤, AI·STO 중심 금융혁신 전략 공개

‘코리아 핀테크 워크 2025’ 참가

코스콤은 오는 26일부터 3일간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코리아 핀테크 워크 2025’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코스콤은 1전시장에 부스를 열고 ▲AI 기술 기반 상담 시스템(AICC) ▲STO 공동 발행 플랫폼 ▲금융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협업 모델도 소개한다. 특히 금융권에 특화된 AI 서비스 도입 사례와 보안·규제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음성·텍스트·이미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멀티모달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코스콤 토큰증권(STO) 공동 발행 플랫폼은 현재 8개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토큰증권 관련 법안 통과 시 참여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코스콤은 이번 행사에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와 공동 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제도 대응 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돕는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 D-테스트베드 등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금융권의 관심이 높은 클라우드·데이터 활용 서비스와 AI 기반 디지털 혁신 사례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덕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핀테크·금융 업계에 토큰증권(STO) 시대의 도래와 AI 기반 금융 혁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코스콤은 금융 생태계 혁신과 토큰증권 정착, 클라우드 기반 AI 활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유안타證, 1700억 신종자본증권 발행

30년 만기·5년·7년 콜옵션 구조
보험·저축은행 등 투자자 참여

유안타증권이 자본확충을 통한 사업 전반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17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18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30년 만기(만기일 2055년)의 이번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과 7년이 지난 시점에 콜옵션(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증권이다. 각각 1100억원, 600억원을 발행하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다. 발행금리는 각각 연 5.0%와 연 5.7%로 매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한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3분기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약 1조6658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자본을 확충하게 됐으며, 신규 투자 여력

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수익 창출 동력을 얻게 됐다.

발행금액은 향후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금융상품 영업력 향상, 마진 파이낸스(Margin Finance) 활성화와 함께 기업금융부문 영업기반 확대, 홀세일(Wholesale)부문의 세일즈풀(pool) 확대 및 트레이딩(Trading)부문의 투자 기회 확보 등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전사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다. 뤼즈평 유안타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유안타증권은 기존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향상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본 적정성을 제고하고 수익원 다각화에 집중해 각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證, 고객만족도 6년 연속 ‘1위’ 달성

3대 서비스 평가서 최상위 유지
금융소비자보호 지표 연속 우수
CCO 중심의 보호 체계 고도화

삼성증권의 ‘고객 중심 경영’이 국내 최고 권위의 고객 만족 지표와 금융소비자 보호 평가에서 성과를 입증했다.

삼성증권은 국내 3개 고객 만족 지수(NCSI, KS-SQI, KCSI)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2021년 신설된 한국능률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지수(KCPI)도 5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또한, 삼성증권은 만족도조사 평가 이래로 국가고객만족도(NCSI) 23회,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21회,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20회 1위를 달성하며,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많은 고객 만족도 1위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고객 만족 트리플 크라운’ 달성은 고객이 삼성증권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우수한 수준을 유지했음을 증명한다. NCSI, KCSI가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한다면, KS-SQI는 실제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전달 과정의 품질을 평가한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성과는 지난



11월,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의 소비자 보호지수(KCPI)’에서 삼성증권이 5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KCPI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의 6대 판매 원칙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각 소비 단계별로, 구매(이용) 전, 구매(이용) 시, 구매(이용) 후 지켜야 할 ‘소비자 6대 권리’를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수이다.

삼성증권은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최고소비자 책임자(CCO·Chief Consumer Officer)를 임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보호광장, 소비자평가단,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원칙 교육, 연 4회 자체 미스터리 쇼핑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보호광장은 삼성증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평가단은 고객과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별하고, 해당 주제의 이해도가 높은 고객을 선별한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전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매월 개최해 문제점 발견 시 개선을 추진한다. 협의회 결과는 반기별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해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NCSI, KCSI, KS-SQI 등 3대 고객 만족 지수에서 이룬 모든 성과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을 최우선으로 지켜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거래소, 소액채권 전담회원 문턱 낮춘다

자기자본 3000억으로 진입 확대
채권 인력 의무·4000억 실적 신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소액채권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시 규모 제한이나 기존 전담회원과 경쟁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액채권은 주택구입·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 시 필수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소액채권 전담회원은 소액채권 시장에서 시장 조성, 신고수익률 제출 의무 등을 수행하는 증권사다.

기존에는 소액채권 전담회원으로 신규 지정하려면 ▲자기자본 거래소 결제 회원 평균의 50% 이상 ▲총자산순이익률 거래소 결제회원 평균의 50% 이상 ▲3년 이상 채권 운용 직원 3인 이상 및 경력 1년 이상 증권결제 직원 1인 이상 중 2가지 요건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자기자본 요건

을 3000억원 이상으로 대체하고, 총자산 순이익률 요건을 폐지했다. 대신 채권 운용 인력 요건은 선택에서 의무로 바꾸고 소액채권 연간 4000억원 이상의 거래 실적을 신설했다.

소액채권전담회원 수를 ‘2개 사 이내’로 명시한 문구는 삭제했다.

아울러 기존 소액채권 전담회원의 경합 평가를 없애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담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소액채권 매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의무매수 호가 제출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액채권 전담회원에 대한 지정·평가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로 소액채권시장 개설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증권사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로 풀이된다.

평가 시기와 결과 통보, 자료 요구권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신하은 기자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자립화 목표 소부장 21개 기업에 1200억 투입

산업부, 5500억 민간투자 견인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 200억

산업통상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핵심기업 21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해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 1211억 원(국비 700억 원 포함)이 투입되면서 5500억원 규모 민간 투자를 견인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18일 오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고,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 21개 기업을 투자지원금 대상 기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자립화를 목표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62개 투자 프로젝트가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추렸다. 지원대상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협약 절차를 마친 뒤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게 된다.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에 대해 30~50%(국비+지방비)를 보조하는 구조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입지·설비투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는 200억원이다. 2025~2027년 3년 단위로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했으며, 투자

완료 후 3년간 사후관리와 정산이 이뤄진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 지원금은 국내 생산·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 등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로봇·방산 분야를 추가해 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정부안 기준 국비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이달 중순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우리술대축제’

/aT

122개 양조장 참여… ‘우리술’ 우수성 알려

농식품부·aT ‘우리술대축제’ 성황
3일간 2만5884명 방문 최대 규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우리술대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8일 aT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는 우리술의 우수성과 맛을 국내외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시음 체험과 다양한 소비자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전국 122개 양조장이 참여했고 총 2만5884명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 규

모로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만5000명 넘는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또 업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운영돼 복합 문화 축제로 꾸러졌다. ▲2025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 ▲막걸리·와인 만들기 체험 ▲양조장 창업 컨설팅 ▲우리술 경매소·코미디 토크쇼 ▲바이어 상담회 등이다.

현장을 찾은 한 방문객은 “평소 우리 술 하면 막걸리 정도만 떠올렸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품미가 깊은 술이 많다는 게 정말 놀라웠다”며 “오늘 시음해본 술 중 가장 취향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 연말 송년모임에 들고 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일자리 증가폭 또 둔화… 역대 두번째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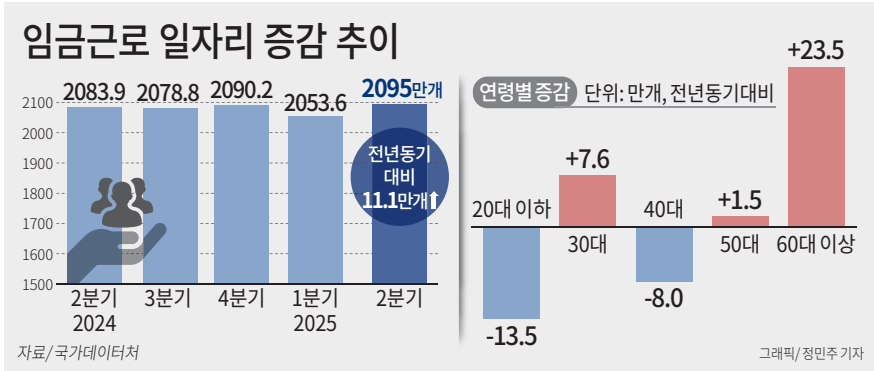
데이터처,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건설업 부진·청년층 고용감소 원인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분기 대비 11만1000개 늘어나는 데 그치며,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속되는 건설업 부진과 20대 이하 청년층 고용 감소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 개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만1000개(0.5%) 증가했다. 증가폭이 지난 201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2번째로 낮다.

지난 1분기에는 일자리가 전년보다 1만5000개 증가하는 것에 그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 2분기엔 전분기보다 일자리가 늘었으나, 추세적으로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구조적 둔화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분기 수치는 지난 3~4년간 이어진 증가 폭 둔화 흐름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를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20대 이하에서 전년동기 대비 13만5000개 감소하며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20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10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이어갔다. 청년층 인구 감소와 함께 졸업 후 취업 유예, 고용시장 진입 지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0대 일자리도 8만개 줄어들며 연령대 중 2번째로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은 23만5000개 증가했고, 뒤를 이어 30대(7만6000개), 50대(1만5000개)도 전년대비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가장 큰 폭의 일자리 감소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6만6000개 감소했고 여성 일자리는 17만7000개 증가했다.

남성은 건설업(-12만1000개), 정보통신업(-9000개), 제조업(-6000개) 등에서 감소한 반면, 여성은 보건·사회복지(11만개), 협회·수리·개인서비스(2만2000개), 전문·과학·기술(1만4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남성은 건설업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은 반면, 여성은 보건·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기업 절반, 희망하는 인재상 ‘전문성’

고용부, 2025 기업 채용동향조사

국내 매출 상위 기업의 절반 이상이 청년 구직자를 채용할 때 ‘전문성’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의 핵심 요건으로는 전공과 인턴십 등 일경험이 가장 많이 꼽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396개 기업 응답)과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 재직자 3093명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기업들은 ‘희망하는 인재상’을 묻는 질문에서 52.8%는 전문성을 최우선 항목으로 답했다.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공(22.3%), 인턴 등 일경험(19.1%), 직무 관련 교육·훈련(17.4%)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 재직자 역시 전공(30.2%)이 입사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뒤이어 직무 관련 자격증(18.4%), 인턴 등 일경험(18.2%)이 뒤를 이었다. 기업과 청년 모두 ‘경험 기반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응답 기업의 85.4%는 “지원자의 일경험이 입사 후 조직·직무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청년 재직자의 80.2% 역시 동일하게 긍정적 효과를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중앙회, 농업인-기업 기술이전 장 마련

‘미래기술 테크 매칭데이’ 개최

농협중앙회가 ‘2025 농업·AI 융합 미래기술 테크 매칭데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농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AI)·자동화·스마트팜 기술 등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기술수요자인 농업인·기업과 연구자 간 실질적 기술이전 연계 강화도 목적이다.

행사는 기술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시작으로 ▲농업분야 AI적용 성공 사례발표 ▲유망기술 소개 ▲1:1연 구자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표기술로는 ▲AI모델 매니플레이터 ▲구근배양효율이 향상된 칼라식물 재분화 기술 ▲AI기반 오류 감소 협동로봇 팔 ▲스마트 적재 및 관리 시스템 ▲신속 대응형 식물바이러스 진단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또 첨단기술을 보유한 연구자와의 1:1개별상담 기회도 제공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농협 투자기업인 인공지능 도축로봇 솔루션 ㈜로보스의 이두연 CEO가 참여해, AI 기반 로봇기술을 활용한 농업 자동화 사례와 상용화 전략에 대한 실질적 통찰을 공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기차 충전기 지자체 미신고시 과태료

기후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의결

‘지자체 앞 신고’ 없이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기 사업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이 확인될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5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책임보

험 가입과 지자체 신고가 의무화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신고 대상과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가입 시기 등이 규정됐다.

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축물 가운데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다.

이 경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 시·도지사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나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 한도는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한해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전 복구 등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가 추가됐다. 또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는 방탈출 카페·키즈카페·관화카페업도 이번 포함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건강창업의 모든 것!



대한홍삼(주)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창업문의 : 1522-7585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포항, 아·태 AI센터 유치 공식화… 국제연구·협력 거점 ‘도약’

국제 연구기관장 간담회

아태이론물리센터 등 국제 연구 기반 포스텍·막스플랑크 공동협력 강화 전력자립률 200% 등 인프라 강점 산업·실증 생태계 기반 유치 추진

포항시는 APEC AI 이니셔티브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Asia-Pacific AI Center) 유치를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7일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사사키 미사오 아태이론물리센터 소장, 박재훈 막스플랑크 연구소장, 박수진 포스텍 연구처장, 유환조 인공지능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해 공동 협력과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는 회원국 간 국제협력은 물론 기술 표준화, 상호운용성, AI 안전성·윤리, 지속적 R&D 협력 등을 통해 정책목표 달성, 민간투자 촉진, 회원국 간 협력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7일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방안을 논의했다.

포항시는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와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 등 국제 연구 허브를 성공적으로 유치·운영해온 도시다. 아태이론물리센터는 1996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국내 유일 국제이론물리센터로, 19개 회원국과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300여 명의 젊은 과학자 연구를 지원해오며 국제협력을 활발히 이어왔다. 막스플랑크연구소는 2011년 포항에 설립된 국제공동연구 거점으로, 미래 첨단 기초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며 국내 연구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포항이 국제 기초과학·AI 연구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 역량과 포항 방사광가속기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국제 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 방사광가속기,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국가 핵심 연구시설과 포스텍·한동대의 연구 인력이 한곳에 모여 있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포항은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이자 수소·바이오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융합·실증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전국 1위 수준인 200% 이상의 전력 자립률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은 AI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AI 센터의 최적 입지 조건으로 꼽힌다. 산업 기반과 에너지 인프라, 실증 가능한 산업 현장과 전문 연구기관 등이 조성돼 있다는 점은 포항이 AI 센터 후보지로 주목받는 핵심 요인이다. 포항시는 앞으로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이어 추진위원회 구성, 타당성 용역 등 단계별 로드맵을 신속히 추진해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아시아·태평양 AI 센터가 유치되면 포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정책과 연구 협력 중심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AI 기반 과학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전남교육청

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확정

전남도는 전남교육청과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지자체 40%, 교육청 60%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다.

전남도·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학교급식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된 공동 TF는 6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 친환경 농산물 공급 방식,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보급 확대 등 효율적 급식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r6313@

하동군-한국남부발전

화력발전소 폐쇄 공동 대응

하동군은 지난 17일 하승철 하동군수와 김준동 한국남부발전(주) 사장이 하동군청에서 만나 하동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한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동군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위한 노력 ▲하동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분석 및 대응책 모색 ▲무탄소·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전원 발굴 및 신규유치 등이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무주군

오광석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장이 지난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오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제9대 무주군 의회 의원으로 재직해오며 ‘무주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군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무주군민을 비롯한 전북도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송전선로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는 등 군민 생활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섰다.

/무주(전북)=정훈 기자 taiji1819@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사 ESG 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오는 26일 부산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해운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운업계의 ESG 경영 기반 강화와 국제 규제 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대학교 등 관계 기관 및 해운기업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ESG 인증서 수여식 ▲전문가 강연 ▲해운사 ESG 진단사업 소개 등으로 꾸려진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 프리미엄 딸기 말레이시아 수출

프리미엄 품종 앞세워 동남아 공략 수출단지 육성·판촉 강화 성장세 ↑

경북도는 2025년 하반기 첫 출하된 경북 딸기가 우수한 당도와 향, 품질을 앞세워 글로벌 프리미엄 딸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남상주농협은 지난 17일 금일 품종 딸기 약 1,650달러 상당을 말레이시아로 선적하며 올해 경북 딸기 수출의 포문을 열었다. 남상주농협은 금일과 아리향 등 프리미엄 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고품질 생산·선별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홍콩 등 동남아 주요 소비국을 중심으로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경북도는 딸기를 ‘신선농산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포항시 딸기연합회, 남상주농협 수출딸기공선회, 고령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이 참



남상주농협 딸기 수확 모습.

여하는 딸기생산수출전문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시설과 기자재 지원, 판촉·마케팅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경북 딸기 수출액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32만9천 달러에서 2024년 77만8천 달러로 136.4% 증가했으며, 2025년 10월 기준 119만5천 달러로 상승세가 더욱 가속되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전략 논의

전담 TF 합동 회의 개최

부산시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대한 시의 추진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8일 오전 10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공공기관 이전추진단 전담 조직(TF)’ 관계부서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최근 정부 및 관계 부처의 추진 동향과 타 시도의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기반으로 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시의 1차 이전 기능군인 금융, 해양, 영화·영상 분야를 중심으로 2차 이전 유치 대상 기관을 검토하고, 부산의 산업 경쟁력 및 미래 성장

분야를 고려해 추가로 발굴해야 할 기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계부서는 이번 전담 조직(TF) 회의를 위해 직접 중앙부처와 대상 기관을 방문해 동향을 파악하는 등 발로 뛰는 노력을 병행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부산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기관 유치 필요성 및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 진행 상황과 내용을 공유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이달 초 유치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부산연구원에 의뢰했다. 앞서 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 미래혁신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이전추진단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 철강산단 완충저류시설 준공

오염수 차단·비상대응 체계 구축

포항시는 추진해 온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최근 준공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형산강 유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착공한 것으로, 총 558억 원(국비 383억 원, 도비 49억 원, 시비 126억 원)이 투입됐다. 완충저류시설은 2,000㎡ 규모의 저류조와 56,800㎡ 규모의 비점오염저감시설, 9.5km 차집관로, 펌프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이 시설은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염수를 우선적으로 받아 외부 유출을 막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초기 대응력을 높여 하천 오염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준공으로 예기치 못한 수질오염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형산강 수질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포항시는 준공에 맞춰 포항시의회, 포항남부소방서,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회 등 관계 기관과 환경안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수질오염사고, 화학물질 유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무안, 고구마가 라떼로 왔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할리스서 첫 선

전남 무안군은 무안군융복합센터에서 생산된 군고구마페이스트가 활용된 고구마라떼 신제품이 11월 19일 전국 할리스 커피 매장에서 동시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올해 초 무안군융복합센터에서 생산한 군고구마페이스트 10톤을 경남 김해시의 식품기업 신광식품에 납품하면서 무안군·착한농부·신광식품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이를 기반으로 고구마라떼 신제품을 개발해 이번에 정식 출시해 할리스 커피에서 전국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됐다. 또한, 이번 협력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1차로 35톤의 고구마를 가공해 군고구마페이스트를 생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안산 고구마가 전국 프랜차이즈 음료 원료로 자리잡으며, 지역 농산물이 전국 프랜차이즈 음료로 확산되는 새로운 성공사례로 거듭나, 앞으로도 지역 농가와 기업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안군은 융복합센터 건립으로 지역 농산물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한 가공식품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전남(무안)=양수영 기자

‘허허 투톱’ 시너지… 글로벌 확장·브랜드 혁신 두 토끼 잡다

〈허진수 부회장·허희수 사장〉

SPC, 투트랙 성장 본격화

SPC그룹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글로벌 사업 확장, 계열사 대표 교체, 신사업 가속 등 주요 변화가 잇따르며 허진수 부회장과 허희수 사장이 전면에 선 투톱 체제의 방향성이 실제 사업 현장에 즉각 반영되고 있다.

◆글로벌 확장 주도하는 허진수

허진수 부회장은 그룹의 글로벌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며 해외 사업 확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 글로벌 BU를 이끌며 미국·유럽·중국·동남아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K-베이커리의 현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질적 성장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파리바게뜨는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 시티 동부 우드버리 레이크스 쇼핑몰에 신규 매장을 열며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만 신규 프랜차이즈 계약 225건, 70여 개의 신규 매장이 문을 열었고, 19분기 연속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미국 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급망 역시 대폭 강화하고 있다. SPC는 텍사스 벨슨 지역에 1억6000만달러



허진수 부회장



허희수 사장

‘글로벌 컨트롤타워’ 허진수 美·유럽·中·동남아 등 핵심지역 공급망 강화, K-베이커리 현지화

‘그룹 혁신 축 담당’ 허희수 배스킨라빈스·던킨 리뉴얼 이끌고 美 ‘치폴레’ 韓·싱가포르에 도입

규모의 첨단 제조시설을 짓고 있으며, 완공 시 북미 전역을 아우르는 최대 생산 거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대규모 네트워크 운영 전문가 잭 설마(Zac Sulma)를 북미 COO로 영입해 운영 효율화와 가맹점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의 무게 중심은 동남아로도 확장되고 있다. SPC삼립은 최근 싱가포르에 신규 법인 ‘SAMLIP SEA PTE. LTD.’를 설립했다. 이는 올해 가동을 시작한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공장



파리바게뜨 미국 텍사스 제빵공장 조감도.

/SPC그룹

과 연동해 동남아시아(SEA) 전역의 유통·물류 허브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싱가포르의 낮은 법인세율(17%)과 탄탄한 콜드체인·항공·해상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냉동 도우·베이커리 완제품 등 주요 품목의 현지 환적·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동남아 허브는 향후 중동 지역까지 연결되며, 사우디·UAE·카타르 등 할랄 시장 공략에서도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허희수, 신사업·브랜드 혁신 총괄

허희수 사장은 그룹의 ‘혁신’ 축을 담당하며 신사업 발굴과 디지털 전환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비알코리아 최고비전책임자(CVO)로서 배스킨라빈스·던킨 브랜드 리뉴얼을 이끌어온

그는 최근에는 미국 대표 멕시칸푸드 브랜드 ‘치폴레(Chipotle)’의 한국 및 싱가포르 도입까지 진전시키며 외식 중심에서 종합 F&B 비즈니스로의 확장을 추진 중이다.

AI 기반 매장 운영 시스템, 고객 데이터 분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체질 개선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룹 내부에서는 “허희수 사장의 역할은 브랜드의 근본을 뜯어고치는 체질 개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책임경영으로 구조 재정비

투톱 체제 구축과 함께 계열사 대표 교체도 빠르게 이뤄졌다. 파리크라상 대표에는 도세호 사장이 선임됐고, SPC삼립은 기존 김범수 대표에 더해 경제형 대표가 내정되며 각자 대표 체제로 재편된다. 샤니 대표에는 지상호 상무

가 내정됐다.

이는 안전·준법·상생 등 그룹이 안고 있는 핵심 과제들을 보다 명확한 ‘책임 경영’ 체계 아래 풀어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SPC커미티 등 그룹 내 협의체 중심의 개선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한편, 2020년부터 SPC삼립을 이끌어온 황종현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활동하며 그룹 경영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리더십 재편을 계기로 SPC가 ‘글로벌 확장’과 ‘브랜드 혁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투트랙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생산·유통 거점 확대, 북미 시장 질적 성장, 동남아-중동 공급망 확장과 더불어 신사업·디지털 기반 혁신 프로젝트까지 가동되며 SPC그룹의 전략 시계가 확실히 빨라졌다는 평가다.

SPC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CEO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해 주요 경영 현안과 안전에 대한 실행력과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새로운 리더십 아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글로벌 총수 치맥회동 패러디 ‘테라’ 신규광고 공개

하이트진로 ‘테라의 시대 2’ 실제 회동장소 ‘간부치킨삼성점’ 촬영 사회적 이슈 유머러스하게 재해석

하이트진로는 대표 맥주 브랜드 ‘테라(TERRA)’의 신규 디지털 광고 ‘테라의 시대 2’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업 수장들의 ‘치맥 회동’을 테라의 시선에서 재치있게 패러디했다.

이번 광고는 3일 만에 콘티 개발을 완료하고, 5일간의 촬영 준비와 후반

작업을 거쳐 단 2주만에 완성한 패스트 버타이징(Fast Advertising) 형식의 프로젝트이다. 사회적 이슈를 유머러스하게 재해석해 브랜드의 생동감과 즐거움을 전달한다는 기획 의도를 담고 있다.

치맥 회동 장면을 오마주한 구성으로 모델들이 국내 대표 맥주 ‘테라’와 치킨을 즐기며 ‘테라쏘맥타워’로 쏘맥을 만들어 마시는 장면이 펼쳐진다. 특히 실제 회동 장소인 ‘간부치킨삼성점’을 배경으로 촬영해 완성도를 높였다.

광고는 가족 재킷을 입은 남자가 치킨집에 들어서며 시작된다. 그가 테이블 위에 ‘테라 쏘맥타워’를 올려놓고 “Dinner is Free tonight!”라고 외치자 손님들이 환호한다. 이때 한 손님이 “그럼 여기 테라3병이요!”라고 요청, 사장으로 분한 박술녀 여사가 등장한다. 이후 냉장과 문이 열리며 내부에 하이트진로의 다양한 제품들이 ‘테라’로 겹쳐지고, 러브샷하는 3명과 함께 “테라의 시대”라는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마지막에 알바생이 “사장님, 저 분

이 그래픽카드로 결제한다는데요?”라는 대사로 유쾌한 반전을 선사하며 마무리된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전무는 “이번 광고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테라의 존재감을 이어가기 위해 빠르게 실행된 패스트버타이징 프로젝트”라며 “화제성과 브랜드의 상상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다시 한번 ‘테라의 시대’가 소비자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GS25가 선보이는 가성비 있는 가격대의 미니케이크와 롤케이크.

/GS25

GS25

4000원대·1만원대 미니·롤케이크 선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4000원대 미니케이크와 1만원대 크리스마스 롤케이크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GS25 측 자료에 따르면 연말(11~12월) 케이크 매출이 평달 대비 195%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고물가 속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상품을 기획했다. 특히 버터베어, 감자 등 인기 캐릭터 IP와 협업해 가심비까지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미니케이크는 버터베어클스미니케이크와 감자초코미니케이크 2종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린 시트 구성과 1~2인이 즐기기 적합한 120g 용량이 특징이며, 가격은 4900원이다.

롤케이크는 매일유유와 협업한 리얼우유케이크와 버터베어 콜라보 상품인 버터베어슈크림케이크 2종을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리얼우유케이크는 우유생크림으로 설원을 표현했으며, 사전 블라인드 맛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다. 가격은 1만8800원으로 시중 베이커리 대비 저렴하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오뚜기, 스프 브랜드 ‘SOUPER’와 협업

55주년 기념… 총 3개 메뉴 선택

오뚜기는 ‘오뚜기 스프’ 55주년을 기념해 수제 스프 브랜드 ‘SOUPER(수퍼)’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협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970년 탄생한 국내 최초의 분말 스프 ‘산타 포타주 스프’를 시작으로 오뚜기는 55년간 국내 스프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해왔다. 이번 협업도 오뚜기의 55년 역사와 기술력에 SOUPER의 실험적 감성을 결합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특별한 스프 경험을 선사한다.

협업은 11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메뉴는 총 세 가지로, ▲오뚜기 ‘옥수수스프’를 활용한 ‘구운 옥수수스프’, ▲오뚜기 ‘크림스프’를 사용한



오뚜기는 ‘오뚜기 스프’ 55주년을 기념해 수제 스프 브랜드 ‘SOUPER(수퍼)’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협업을 진행한다.

/오뚜기

‘단호박 울무 크림스프’, ▲오뚜기 ‘참치’와 ‘트리플 마요’, 라이트앤조이 ‘청송사과잼’, ‘그린바질드레싱’을 조합한 ‘라이트앤조이 트리플 튜나 샌드위치’로 구성됐다. 각 메뉴는 오뚜기 스프의 익숙한 풍미를 유지하면서도, SOUPER 특유의 신선한 레시피를 통해 색다른 질감과 조화를 구현했다.

/신원선 기자

퀴진케이, 한식 다이닝 팝업 ‘오닐’ 오픈

CJ제일제당, 최인규·진연준 셰프 운영 제철 식재료 활용 디너코스 요리 선택

CJ제일제당이 차세대 한식 셰프 발굴·양성 프로젝트 ‘퀴진케이(Cuisine. K)’의 여덟 번째 팝업 레스토랑 ‘오닐(ONIL)’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닐’은 “오감으로 한식과 노닐다”라는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은 모던 한식 다이닝이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출신의 최인규 셰프와 진연준 셰프가 함께 운영하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계절의 풍미를 담은 디너 코스 요리를 선보인다.

메뉴는 ▲작은 한입거리들(떡볶이 바이트·춘권 바이트) ▲광어와 동치미 물회 ▲새우와 호박죽 ▲제철 생선 미역국 ▲향정살과 버섯술밥 ▲순두부 아

이스크림 ▲차와 다과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7가지 요리에 하든 메뉴를 더한 총 8가지 코스로 구성, 미각은 물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와인 페어링도 마련했다.

이번 팝업은 서울 강남구 소재 퀴진케이 레스토랑에서 내년 4월 중순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캐치테이블’ 앱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퀴진케이’는 한식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CJ제일제당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대표 프로그램인 ‘한식 팝업 레스토랑’을 통해 유망한 젊은 한식 셰프들이 오너 셰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CJ올리브영, 온·오프라인서 날개 3분기 매출 1.5조… 26% ‘썰충’

〈전년동기대비〉

오프라인 매장, 국내외 방문객 증가
글로벌몰·오늘드림 등 서비스 혁신
‘K-쇼핑 랜드마크’ 입지 강화 방침

국내 유통 강자 CJ올리브영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쌍두마차’ 전략을 본격화하며 K뷰티의 성장 흐름을 이끌고 있다.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체험 수요가 늘고 글로벌몰 중심의 해외 역직구가 확대되면서 유통 업계 전반의 성장 엔진도 다변화되는 추세다.

18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균형 잡힌 성장 기반을 다졌다. 올해 3분기 별도기준 전체 매출은 1조55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커졌고 이중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세는 모두 두 자릿수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출은 전분기 대비 6%,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출도 전분기 대비 7%, 전년 동기 대비 37% 늘면서 오프라인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분기 28%에서 올해 3분기 30%로 확대됐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주요 관광 상권의 외국인 방문객 증가가 주효했고 올리브영은 관광 상권을 중심으로 신규 매장을 추가하는 등 내수 소비 회복에 대응하는 전략을 펼쳤다. 실제로 점포수는 올해 1분기 1379개, 2분기 1393개, 3분기 1394개 등으로 늘었다. 직영점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1148개에서 올해 3분기 1178개로 출점했고 같은 기간 가맹점은 223개에서 216개로 줄었다.



올리브영N 성수 매장 전경. /CJ올리브영

온라인에서는 국내 ‘오늘드림’과 해외 ‘글로벌몰’이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오늘드림은 온·오프라인을 연동한 배송 서비스다.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도심형 물류센터를 활용하고 있어 3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몰에서는 현지 맞춤형 마케팅에 중점을 둔다.

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K쇼핑’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성수에 위치한 ‘올리브영N 성수’의 경우 대표 K뷰티관광 성지로 꼽힌다. 해당 매장 개점 전후 성수 상권 내 올리브영 매장 6곳의 외국인 결제 건수는 592%, 내국인 건수는 81% 상승했다. 성수 상권 매장 6곳의 외국인 매출 비중 역시 지난해 평균 40%에서 올해 10월 70%를 넘어섰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매장 자체를 쇼핑은 물론 K뷰티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재설계한 성과”라며 “외국인 유입 활성화, K뷰티 소비 확산 등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리테일 혁신에 속도를 내며 K뷰티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했다.

글로벌 역직구 수요는 K뷰티 유통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 175개 지역에서 K뷰티를 유통하고 있는 실리콘투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8103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1630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연간 매출 1조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기업 대상 사업이다. K뷰티 브랜드 기업 고객들을 위한 플랫폼 ‘스타일코리안’을 운영함과 동시에 해외 현지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지속 늘려 K뷰티 입지를 넓힌다.

실리콘투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K뷰티 편집숍 ‘모이다’를 통해 국내 브랜드를 소개해 왔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소재 온타리오 밀스 몰에 북미 지역 1호점 문을 열었고 현재 2호점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026년 상반기에는 플로리다에서 새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3분기 기준 실리콘투 지역별 매출 비중은 유럽 1019억원, 미국과 캐나다 726억원, 아시아 528억원, 중동 305억원 순으로 이뤄졌다.

바른손의 K뷰티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졸스’도 해외 시장에서 순항하고 있다. 졸스가 글로벌 K뷰티 소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졸스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은 지난해 8월 공개 후 1년 만인 올해 7월 누적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다.

또 다른 역직구 유통사 딜리버드코리아는 기업 전용 B2B 해외 판매 지원 서비스 ‘딜리버드파트너스’를 내놓았다. 최근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2025 한류 박람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지난 15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2025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유한양행 황학선 ESG2팀장(왼쪽부터), 이병만 유한양행 부사장, 서울대학교 박성호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김상준 교수, 류준열 한국전문경영인학회장, 유한양행 조민철 ESG경영실장 등이 ‘제3회 유한 ESG 학술상’ 수상을 기념하며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 ‘유한 ESG 학술상’ 시상

‘온라인 식료 플랫폼과 식품 폐기물’ 대상

유한양행은 지난 15일 서울시립대학교 미래관에서 한국전문경영인학회와 함께 ‘제3회 유한 ESG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한 ESG 학술상’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분야의 학술연구 활성화에 중점을 두며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주관하고 유한양행이 후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리나 왕 교수, 서울대학교 살사빌 라아이 샤리안다 연구자, 임재현 교수와 박성호 교수의 ‘온라인 식료 플랫폼과 식품 폐기물: 인도네시아 플랫폼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 운영 요인

분석’이라는 공동연구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지영 연구자와 김상준 교수의 ‘ESG 제도에 따른 인식의 구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담론 비교’ 연구가 선정됐다.

아울러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전달됐다.

이병만 유한양행 부사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 연구와 실천을 확산하는 이 자리가 매년 더욱 의미 있는 자리로 발전하고 있다”며 “유한양행은 앞으로도 ESG경영의 학문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학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LG생건, 뷰티 디바이스 ‘CES 혁신상’

‘하이퍼 리주버네이팅 아이 패치’ 수상

LG생활건강은 웨어러블 뷰티 디바이스 ‘하이퍼 리주버네이팅 아이 패치’가 CES 2026 뷰티테크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퍼 리주버네이팅 아이 패치는 LG생활건강의 독자적인 피부 진단, 생체 모방 패치, 맞춤형 효능 성분 처방, 빛 에너지 제어 등 차세대 기술력을 통합한 기기다. 기기는 먼저 고객의 눈가 주름, 색소 침착, 다크서클 등 노화 요소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LG생활건강은 6만 명 분의 빅데이터를 구축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피부 진단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적합한 화장품 유효 성분을 추천하면서 ‘음압 패치’를 눈가에 부착해 유효 성분을 피부 안으로 직접 전달한다. 이와 함께 ‘플렉서블 LED 패치’를 통해 최적화된 빛으로 피부 속 깊은 곳까지 관리할 수 있다.

LG생활건강 강내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하이퍼 리주버네이팅 아이 패치의 CES 2026 수상을 시작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 솔루션과 새로운 웨어러블 제품 간의 융합 연구에 집중하겠다”며 “LG생활건강은 스킨 루메티비티(피부 장수)를 위한 미래 뷰티테크 연구 개발로 차별적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HK이노엔, 근감소증 치료제 본격 개발

카인사이언스와 공동연구개발 계약
노인성·대사질환 포트폴리오 확장

HK이노엔(HK inno.N)이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에 본격 나서며 노인성 질환 및 대사질환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낸다.

HK이노엔은 최근 카인사이언스와 염증 조절 펩타이드 기반 신약 후보물질인 ‘KINE-101’의 근감소증 치료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HK이노엔은 KINE-101의 국내 임상 2상 수행을 주도하고, 카인사이언스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생산 및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내년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신속한 임상 진입과 국내 사업화 가능성 확보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KINE-101’은 염증 반응 조절에 핵심적인 단백질인 ‘ERDR1’에서 유래한 펩타이드로, 면역 체계의 균형 유지 및 염증 완화기전을 가진 혁신적인 신약후보물질이다. 해당 물질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미국 임상 1상을 마쳤으며,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



HK이노엔 광달원 대표(오른쪽)와 카인사이언스 조대호 대표가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증(CIDP) 치료제로는 국내 환자 대상 임상을 완료했다. 현재 근감소증 적응증을 위한 비임상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근감소증은 노화나 비만, 대사이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전 세계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남성 약 9.5%, 여성 약 9.3%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관련 치료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공동 개발 계약에 따라 HK이노엔이 현재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비

만치료제 ‘IN-B0009’와 병용투여를 통한 근육량 감소 개선 시너지도 기대된다. 현재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대부분의 비만치료제는 체중 감소와 함께 근육량 감소가 동반되는 한계를 갖고 있어, KINE-101은 근육 보존형 치료제로의 차별적 가치를 가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HK이노엔 광달원 대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만성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 선점은 물론, 글로벌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카인사이언스와 협력해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hy, ‘HP7’ 소화기능 개선 효과 규명

〈기능성 균주〉

사균체 효능 입증… 국제학술지 게재

hy가 자체 개발한 특허 유산균 ‘HP7’의 소화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하며 관련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회사는 이번 결과가 HP7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y는 HP7의 소화기능 개선 효과를 규명한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 ‘미생물학 및 생명공학 저널(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HP7 사균체의 효능에

초점을 맞췄다. 동물 모델에 4주간 HP7 사균체 10억 CFU를 투여한 뒤 의도적으로 소화불량을 유발한 결과, 위 비움 능력(gastric emptying)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장 운동이 회복되며 내용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기능이 안정화했다는 의미다.

더불어 소화 관련 호르몬과 소화 효소 분비가 개선됐고, 위 운동과 연관된 평활근 수축·밀착연접 관련 유전자 발현도 증가했다. 염증 유전자 발현은 감소해 전반적인 위 기능 관리 효능을 확인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롯데칠성음료, 친환경차 도입 공로 인정 받아

롯데칠성음료는 전날 서울 더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2025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적극적인 친환경차 도입의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과 김지훈 롯데칠성음료 차량지원담당 매니저(오른쪽)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한국콜마, 여성공학인 성장 지원 우수기업

한국콜마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열린 '2025 산업현장 여성공학인대회'에서 여성공학인 성장 지원 우수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협회장 상에 이어 2년 연속 중견 부문에서 선정됐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오른쪽)가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콜마



동서식품, 독거어르신 위한 생활지원 봉사활동

동서식품은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어르신을 위한 생활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서식품 직원들은 보양식과 간식, 온수매트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직접 포장하고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동서식품



BGF리테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왼쪽부터)민승배 대표이사, 이일형 LRQA(로이드 인증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

/BGF리테일



IBK기업은행, 'IBK창공 실리콘밸리 센터' 개소

IBK기업은행이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IBK창공 실리콘밸리 센터'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IBK창공 실리콘밸리 센터'는 기업은행이 2023년 9월부터 운영 중인 IBK창공 실리콘밸리 데스크를 정규센터로 전환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이를 통해 국내 혁신·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금속부터 전략광물까지… 고려아연, ‘세계일류상품’ 선정

아연, 2002년 선정後 자격 유지
연, 은, 인듐, 안티모니까지 총 5개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연(납)과 은, 인듐이 정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 또 방위산업 필수 소재인 전략광물 안티모니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오르면서 고려아연은 전 세계 비철금속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대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고려아연은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18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2025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고려아연에 세계일류상품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코트라는 매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서 점유율 5% 이상인 국내 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세계일류상품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이며, 국내 시장 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모의 2배 이상이거나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인 상품이다.

또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연평균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제품이다.

정부는 이들 제품 가운데 향후 7년 안에 세계일류상품에 오를 가능성이 큰 제품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다.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아연은 지난 2002년 세계일류상품에 오른 이후 현재까지 세계일류상품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주요 금속들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고려아연이 보유한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아연 ▲연 ▲은 ▲인듐 ▲안티모니 등 총 5개로 늘어났다.

롯데렌탈, 중고차 판매품질 향상 기여

韓 자동차진단평가 기능경진대회 단체상, 국토부 장관표창 등 수상

롯데렌탈, 車 진단기능 경진대회 3연속 수상 쾌거

롯데렌탈이 지난 15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자동차진단평가 기능경진대회'에서 단체상,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일반부 동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자동차 진단 평가사들이 자동차 진단 기술·평가능력을 겨루는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다. 자동차 진단 평가사는 중고차의 상태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세히 평가하고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공인 자격으로 중고차 거래 신뢰 확보의 핵심 역할을 한다. 롯데렌탈은 2023년 금상 수상, 2024년 은상과 단체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표창을 받았다.

올해 5월 중고차 소매 브랜드 'Tc



지난 15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자동차진단평가 기능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롯데렌탈 주경이 티카 사업부부장(왼쪽)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고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정옥회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렌탈

ar'를 선보이며 중고차 시장에 본격 진출한 롯데렌탈은 차량 정비 관련 정기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차량 점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중고차 판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HD현대오일뱅크·케미칼, T/A 안전 강조

현장 찾아 근로자 소통 강화

HD현대오일뱅크와 HD현대케미칼 주요 경영진이 정기보수(T/A·Turnaround) 현장을 직접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양사는 올해 진행 중인 HD현대케미칼 HPC 정기보수 기간 동안 '함께하는 TA, 함께하는 안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현장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송명준·정임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와 조남수 HD현대케미칼 대표 등 경영진은 지난 14일 대산 공장을 방문해 정기보수 작업에 참여 중인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약 1700여명에게 도넛과 커피 등을 제공하며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간식 행사는 장기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사장이 지난 14일 대산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간 정기보수에 참여한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집중도가 높은 작업 과정에서 안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송명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올해 들어 '현장 소통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OCI홀딩스, 육아휴직 촉진제도 도입

다자녀 혜택 신설·강화

OCI홀딩스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촉진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가족친화적 사내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OCI홀딩스는 최근 마무리된 2025년 노사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 3개월 사용을 제도화했다. 또 정년보장, 사내 대출, 출산장려금 등 다자녀 혜택을 신설·강

화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는 제조업 특성상 남성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속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과 임직원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올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양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된 법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회사는 이를 적극 안내하고 직원들이 개정된 법령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홈앤쇼핑, ‘우수중기관’ UI·UX 새단장

이동 동선·상품 접근성 개선

홈앤쇼핑이 '우수중기관' 매장을 최근 새단장하고 고객 편의성 등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고객의 쇼핑 동선을 단축하고 중소기업 우수상품의 노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편의성 중심으로 UI·UX를 전면 개선했 것이 특징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우수중기관'

은 사용자의 이동 동선과 상품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상단에는 주요 상품군과 테마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퀵메뉴'를 신설해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매주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주간 특가' 영역을 신설해 방문 시마다 신선한 프로모션을 만나볼 수 있게 했다. 하단 카테고리 UI 개편을 통해 상품군별 배너를 추가해 이용 편의성과 몰입도를 높였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지식재산정책과장 한덕원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 서창대
-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자료 과장 류지연 △청주관 운영부장 박수진

부음

▲서정기(향년 93세)씨 별세, 박종규(전 괴산군 장연면장)·박상규(전 KGC인삼

공사 과장)·박정규씨 모친상, 민병무(데일리한국 금융부 부국장)씨 장모상 = 18일 오전 4시,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장지 음성대지공원묘지. 043-210-5444
▲이철구(향년 85세)씨 별세, 이순자씨 남편상, 이경희(커리어케어 전무)·이주현(삼성화재 프로)씨 부친상, 유선경씨 장인상 = 17일 오전 11시50분,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19일 낮 12시에 2호실로 이동), 발인 20일 오전 5시, 장지 충남 부여 선영. 02-2290-9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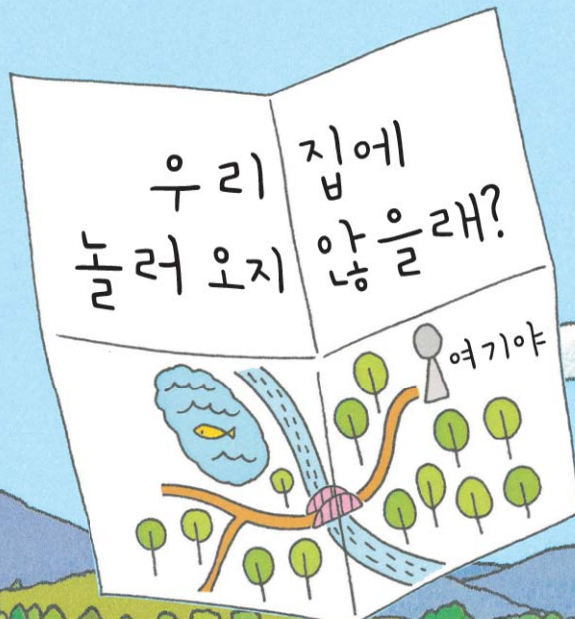
20개월 이상 관람가

더 강력하게 돌아왔다! 20만 관객 증명!
기발한 상상력의 이머시브 뮤지컬

뮤지컬

100

총짜리 집



©Toshio IWAI/ KAISEI-SHA

2026.01.09(금) ~ 03.02(월)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 대극장

생애말기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사람은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기대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세상이 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어떻게 품위 있게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신체적 고통이나 갑작스럽고 충분하지 못한 작별, 가족의 슬픔 등 임종 과정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생애말기 서비스는 죽음을 기다리며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편안하게 보내도록 돕는 돌봄이다. 생애말기 대상자들과 가족들이 안락한 가정환경에서 존엄성을 잃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간호를 제공하거나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신체적 증상, 즉 통증이나 호흡 곤란 등 힘든 문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임종을 앞둔 사람과 가족의 불안, 두려움, 슬픔에도 전문적으로 상담과 지지

를 제공한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할 말이나 정리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가족 역시 환자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준비와 작별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매우 더디게 제도화가 이뤄졌고 주로 암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생애말기 서비스는 특정 질환에 한정되지 않는다. 노쇠, 만성질환, 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생애 말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모두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노인은 가족과 함께 익숙한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치료 연장과 반복적인 응급실 방문으로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환자는 통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가족 역시 간병의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에 지친다.

생애말기 서비스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먼저 서비스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노쇠나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둘째, 서비스가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집에서 돌봄을 받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의사와 간호사의 방문은 필수적이지만, 방

문 횟수나 시간대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어 원하는 만큼 이용하기 어렵다. 셋째, 임종기 돌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가족의 휴식을 돕는 단기보호 기관도 전국적으로 수가 매우 적어서 쉽게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집에서 환자가 안정적으로 생애말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진료와 간호 기준을 완화하고, 야간이나 주말 등 다양한 시간에도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수가 체계를 고칠 필요가 있다. 가족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단기보호 자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가 살던 곳, 가족 곁에서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생애말기 서비스는 단순한 의료 지원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고 가족의 슬픔을 덜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누구나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생애말기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확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앞장서야 할 복지적 가치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치권의 반짝 관심, 실망만 키웠다



기지 수첩
최 빛 나 (IT부)

올해 ‘지스타 2025’ 현장은 여느 때와 달랐다. 여섯번째 지스타를 취재하는 입장에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 정도로 집중된 해는 처음이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소 조용하던 정치인들이 갑작스레 벅스코로 몰려와 사진을 찍고 시연대를 둘러보는 모습은 아무리 좋게 봐도 ‘표가 되는 방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문제는 관심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관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행사에 참여하는 관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프로게이머 처우 문제를 언급하면서 승부 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인 마재윤을 과거 유명 선수들과 함께 거론한 것도 그 중 하

나다. 업계에서 금기처럼 취급되는 이름인데, 지원하러 온 자리에서 오히려 상처를 건드려 현장 공기를 순식간에 어색하게 만들었다.

정치권의 ‘반짝 관심’은 주무 부처에서도 드러났다. 지스타 전야제인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지만, 장관과 차관 모두 불참했고 축사는 콘텐츠정책국장이 대독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국회 일정은 이해하지만, 국장 대독은 성의가 부족하다”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이 올해 게임산업 지원 의지를 직접 밝힌 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계의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지스타 현장의 분위기는 지난해보다 참가 부스가 줄어 전시장은 확연히 비어 보였고, 내부 분위기 역시 한층 뚝뚝했다. 그마저도 메인스폰서인 엔씨소프트가 대형 부스를 꾸려 행사의 중심을 잡아주며 ‘엔스

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축제의 무게를 사실상 한 회사가 지탱한 셈이다. 대형사와 해외 기업 참여는 모두 줄었고 전시장 곳곳에는 빈 공간이 드러났으며, 일부 시간대에는 관람객 흐름도 여유롭다 못해 한산했다.

‘정치의 관심’과 ‘산업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점이다.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최전선이다. 이 산업이 필요로 하는 관심은 이벤트성 방문이 아니라 현장을 정확히 이해한 뒤 이어지는 꾸준한 지원이다. 정치가 진심을 증명하는 방법은 한 번의 등장이나 사진 몇 장이 아니라 반복되는 책임과 실질적인 조치다. 지스타는 인기 경쟁의 무대가 아니다. 한국 게임산업의 심장부다. 정치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날, 지스타와 업계 모두 비로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vitn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19일 (음 9월 3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배우자와 대화가 없으니 썰렁. 48년생 잔피로 상대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 마라. 6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이. 72년생 이성 간에 금전거래는 늘 악연을 불러온다. 84년생 가족에게 아픔이 발생 수이니 음주 주의.



37년생 친구와의 화목에는 내가 먼저 양보심도 있는데. 49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61년생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73년생 황금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장식. 85년생 모난 돌이 정 많은 법이니 오늘은 자중.



38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50년생 이혼은 한걸음 물러서서 되돌아보고 현실적인 타협점을. 62년생 능력 이상의 성과가 있는 날. 74년생 문서가 발동하니 소규모투자를. 86년생 오랜 친구 방문만 갈 일이 있다.



39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문제가 일시에 해결. 51년생 독단적인 일 처리로 타인의 원망을 듣는다. 63년생 레일을 벗어나지 말고 정도를 걸어라. 75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 87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40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52년생 자격자심으로 나를 확대하지 말자. 64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다리면 된다. 76년생 오후에 음주는 하지말자. 88년생 나의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41년생 남의 일에 감을 보라. 대추 뇌라 할 것 없으니. 53년생 내일을 위해 조금 더 노력. 65년생 상쾌함이 불어오니 일도 풀린다. 77년생 두드려도 열리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89년생 기술 배우는 노력도 해보는 것이.



42년생 인생은 내가 살아온 결과물로 사는 것. 54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도록. 66년생 동창들 모임에서 옛 생각을 해본다. 78년생 마음이 바쁘니 어려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90년생 정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



43년생 자식 때문에 근심이 많다. 55년생 결론은 내 뜻대로 밀고 나간다. 67년생 흘러간 세월을 그리워 말고 내일을 준비. 79년생 잊도록 해야겠으나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다. 91년생 원하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나 복병을 조심해야.



44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56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68년생 농사지를 땅을 다시 확인해 보러 가는 날. 80년생 조상의 수호신이 보호하니 외로워 말자. 92년생 오후에 음주 교통사고 주의.



45년생 숨은 기술로 남을 도와주게 되니 기쁘다. 57년생 결심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69년생 다시 초심을 생각하고 노력하자. 81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93년생 민망한 일을 당해도 결국 자신의 잘못이니 할 수 없다.



46년생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58년생 자신을 등불로 삼아 앞으로 나가라. 70년생 어린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82년생 좋은 변화의 기운이 남동쪽으로부터 오기 시작. 94년생 걱정이 해소되니 마음이 편안하다.



47년생 자치기 쉬운 날이니 건강에 신경. 59년생 지나친 관심은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71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대화에 주의. 83년생 눈앞의 실수를 챙기다 큰 이익을 놓친다. 95년생 욕심이란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도 만족을 모른다.



김상회의四季 누구나 좋을 순 없다

‘제로섬(zero-sum) 법칙’말 그대로 합치면 0(Zero)가 된다는 뜻으로, 한쪽이 이득을 본 만큼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 사실 인생사는 양면성이다. 동전의 양면으로 선은 악이 있으므로 인해 풀인 줄을 안다. 주식도 같은 종목을 같은 시간에 사고, 팔면서 누군가 이득을 봤다면 반대로 손실을 본 사람이 존재한다. 제로섬 법칙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의 불행이 누군가에게는 행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어릴 적 동화책에서도 보았지만, 교과서에도 실렸던 얘기였던 우산장수와 나막신 장수를 둔 어머니 얘기가 기억난다. 해가 쨍쨍하면 우산장수 아들 걱정하고 비가 오면 나막신 장수 아들을 걱정하느라 근심이 떠날 날 없던 어머니의 근심을 빗대어 누군가에게는 행운이 누군가에게는 근심인 것이 인생사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얼마 전일로 썰핏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었다. 어느 소방서 관할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0씨가 SNS에 부적절한 내용을 올려놓아 뉴스가 된 것이었다. 내용인즉슨 지난 9월 00 남동소방서 관할 구급센터로 추정되는 사무실에서 근무복을 입은 3명이 앉아 있는 모습과 함께 “오늘 15건 이상 나가게 해주세요,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지하철 화장실 출산 1건 터지게 해주세요.” 등의 글을 올린 것이다.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장난으로 올린 것이라 해명했다지만, 위급상황 시 출동이 실적과 연결되어 그런 것 아닌가? 도로에서 차 사고가 나면 택카들 끼리 달려오는 것도 불운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겐 수익이 되는 일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는 자리이다(自利利他)의 길은 무엇이란 말인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9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89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할힘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레코드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스도쿠 365

153문제

결합형 스도쿠

153문제

컬러 스도쿠 110

초·중·고·대 120

8		5	2	6				
								1
3						8	7	
	3		6			9		
8			3		9			5
		6			4		1	
	7	8						3
5								
			4	5	7		2	

	4		6					7
2		9	5					4
					8			
				3		1		6
	1						3	
7		8		5				
				7				
1						2	7	5
	6				3		2	

8	2	1	8	9	7	8	6	9
9	7	1	8	6	8	1	2	9
8	6	9	2	9	1	8	1	7
1	1	8	7	8	2	9	9	6
9	9	2	6	1	8	7	1	8
7	8	6	9	1	9	2	8	1
2	1	8	1	7	6	9	9	8
1	9	8	8	1	6	7	2	
6	8	7	9	2	9	8	1	

서울시, 모아주택 7개 지역 확정

〈시흥·변동 등〉

3867세대 공급… 814세대 임대

市, 개별 모아주택 사업 본격화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등 공급
세입자 손실보상… 이주갈등 차단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 7개 지역의 사업시행계획안을 확정해 총 3867세대 주택을 공급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과 동시에 시행계획이 신속히 결정됨에 따라 개별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17일 제17차 소규모주택 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6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강북구 변동 458-2번지 일대 ▲강북구 변동 471-118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329-28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327-1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317-64번지 일대 모아주택으

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86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814세대는 임대로 공급된다.

먼저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는 7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총 473세대(임대 95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세대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을 높였다.

강북구 변동2지역(변동 454번지 일대)은 모아주택 2곳 추진으로 기존 843세대보다 256세대 늘어난 총 1099세대(임대 266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변동 458-2번지, 471-118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12개 동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했다.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4개 사업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총 2295세대(임대 453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6개 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559세대(임대 106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중화동 329-28번지 일대 모아주택(2-2구역)은 6개 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557세대(임대 110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중화동 327-1번지 일대 모아주택(2-3구역)은 7개 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644세대(임대 145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중화동 317-64번지 일대 모아주택(2-5구역)은 8개 동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535세대(임대 92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은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며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과 약,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안산시화쓰레기 매립지에 조성될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조감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 첫 삽

공식 명칭 ‘새로숲’… 989억 투입

경기도는 옛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를 기반으로 조성할 예정인 경기지방정원이 공식 이름으로 ‘새로숲’을 채택하고, 지난 17일 안산시에서 ‘경기지방정원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새로숲’은 ‘새로운 숲’, ‘다시 태어나는 자연’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단순한 공간의 명칭을 넘어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민과 함께 회복과 공존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과거 쓰레기와 오염의 공간이었던 안산시화매립지를 생태문화의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도는 총 9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5만㎡ 부지에 경기지방정원을 조성한다. 2021년부터 행정절차와 설계를 진행했고, 17일 공사를 시작했다. 1단계 개방은 2026년 4월로 예정됐다. 정원 18만㎡와 안산갈대습지 40만㎡를 연계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나머지 구역의 정원시설 및 센터 건축을 완료해 2027년 전체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정원지원센터, 방문자센터를 포함해 맞이정원, 감상정원, 휴식정원, 기후정원, 참여정원 등이 조성된다. 이들 공간은 단순한 정원시설이 아니라 교육·체험·휴식이 가능한 복합 정원으로 운영한다.

경기도는 정원 조성과 함께 안산갈대습지, 화성비봉습지 등 인근 생태자원과 연계해 정원-습지-수변을 연결하는 복합 생태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써 경기도 남부권을 대표하는 생물다양성 중심축이자 친환경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도는 정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생태 투어, 정원산업 박람회 등을 연계해 장기적으로는 정원문화의 거점으로 ‘새로숲’을 성장시킬 방침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AIDT ‘교육자료’ 전환… 현장 도입 탄력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교육부,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정 개정
정의·범위 삭제… 법률 중심 재구성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법률 개정으로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재분류되면서 관련 규정이 대폭 정비됐다. 정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교과용 도서 체계를 법률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시행령 전반의 용어와 조항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4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위법 내용과 시행령 간의 체계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교과서가 무엇인지, 어떤 범위를 포함하는지 일부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 사항이 법률로 상향 입법되면서 시행령에서 같은 조항을 삭제해 중복을 없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교과서 제도를 법률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개정으로 교육 자료로 분류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예: AI 학습보조 프로그램

웹)’은 더 이상 교과용 도서로 간주되지 않음에 따라, 이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던 교과용 도서 검정 방법과 합격 공고 규정도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완전히 분리돼 ‘교육자료’로 전환된 셈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반 학습자료는 교과서 수준의 엄격한 검정 절차 없이 보다 유연하게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행령 내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교과용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서책’을 ‘도서’로 수정하는 등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현진 기자

기차바위 일대 산림휴양 명소 재탄생

의정부시 전망대·쉼터 조성 사업 완료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사진)는 수락산 대표 명소인 ‘기차바위 전망대 및 쉼터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14일부터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다.

이번 사업은 등산객 안전 강화와 휴식 공간 확충, 조망 명소재정비 등을 목표로 추진돼, 기차바위 일대가 새로운 산림휴양 명소로 재탄생했다.

그동안 기차바위 일대는 정상부의 탁월한 조망 가치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된 시설과 부족한 휴식공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전망대(84㎡)와 쉼터 2개소(45㎡)를 새롭게 조성하고, 안전로프도 설치했다. 이에 따라 기차바위 주변은 안전·휴식·조망의 삼박자를 갖춘 공간으로 개선, 등산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산림휴양 환경이 조성됐다.

/의정부(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정부 “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 확대”

학교 현장 민주시민교육 강화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학생 대상 헌법전문강사 강의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205개교 603학급, 중학교 71개교 311학급 등 총 276개교 914학급에서 법무부 소속 헌법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기본권과 인권, 법의 역할 등이며,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

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 대상 헌법교육은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교원 대상 헌법교육은 헌법재판연구원원이 담당한다. 교수진이 직접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하며 전국 5개 시·도 교육청(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에서 운영된다. 18일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해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강의 대상에는 일반 교사뿐 아니라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시·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

/이현진 기자

▲ 리비아 북동부 바니 왈리드 시에서 대규모 폭발
▲ 중일 관계 악화 속 주일 미대사 “센카쿠 포함
일본어 약속”



▲ 트럼프家, 사우디 기업과 ‘몰디브 호화 리조트’ 건설 사업 협력
▲ 中-시리아 외교장관 회담…“테러 대응 협력
강화”
(사진 뉴시스)

▲ 中·日 고위급, 다카이치 ‘대만 유사’ 발언 후 첫
베이징 대면 회담
▲ 우크라 前부총리, 에너지 부패 스캔들 연루 체
포 영장



SPC
투톱 체제
성장 본격화
L1



Life

CJ올리브영
3분기 매출 1.5조
전년비 26%↑
L2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2025년 11월 19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 metro[®] · metro경제

가상세계 밖으로 나온 피지컬 AI, 산업재편 신호탄 쏘다

산업 패러다임 바꿀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넘어 하드웨어까지 진화
스마트팩토리 자동화·협업로봇 등
생산성·안전성 기준 바꿀 신기술
산업 변화 흐름, 혁신 사례 등 논의

산업 패러다임이 다시 한 번 분기점을 맞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언어·소프트웨어 중심의 도구를 넘어 물리적 세계와 결합하는 ‘피지컬(Physical) AI’ 단계로 진화하면서 제조업부터 물류, 자율주행, 의료까지 산업 전반의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AI의 작동 범위가 가상 환경을 벗어나 현실에서 관측·판단·행동으로 확장되면서, 기업들의 혁신 전략 역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위기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지컬 AI를 ‘AI 모델의 완성형’으로 평가한다. 센서를 통해 현실을 인지하고,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로봇·장비 등 실제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기존 LLM 기반 AI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는다. 산업에 미칠 충격 역시 거대하다. 스마트팩토리의 자동 최적화, 병원·물류센터에서의 인간 수준 협업 로봇, 재난 대응·보안 시스템의 고도화 등 피지컬 AI는 생산성과 안전성의 기준 자체를 바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이다.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기술 전환의 방향성과

각 분야별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구성된다.

포럼은 조풍연 한국 SW·ICT 총연합회장의 축사로 문을 연다. 이어 유태준 마음AI 대표(한국피지컬AI협회장)가 ‘피지컬 AI 국가 대전환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아 피지컬 AI의 현주소와 글로벌 기술 경쟁 구도를 짚는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인류의 상징, 첫 무인화 혁명’을,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는 ‘AI의 모든 것, AI 교육부터 AI 클라우드 사례’를 통해 실증 중심의 산업 변화 흐름을 제시한다.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는 산업·데이터 관점에서 피지컬 AI의 실제 적용 조건을 분석하며, 김하늘 에이민텔리전스 이사는 보안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준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14:00~14:10	축사	조풍연 한국 SW·ICT 총연합회장(메타필드 대표)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한국피지컬AI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10~14:40	기조강연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한국피지컬AI협회장 : 피지컬 AI 국가 대전환 전략
14:40~15:10	강연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 : 인류역사상 첫 무인화혁명, Physical AI
15:10~15:40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 AI의 모든 것: AI 교육부터 AI 클라우드 사례
15:40~16:10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 피지컬 AI 시대, VLA 모델 발전을 위한 데이터 현황과 과제
16:10~16:40		김하늘 에이민텔리전스 이사 : Agent 시대 AI 보안의 표준

보틱스, 데이터팩토리 등 피지컬 AI가 가져올 산업별 혁신 사례가 종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술 진화의 최전선에

선 기업들은 물론 정책·연구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할까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유태준
마음AI 대표

유태준 마음AI 대표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을 졸업한 뒤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운영위원, 경기도 인공지능 정책자문단 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공공 AI 핵심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현재 마음AI 대표이사이자 한국피지컬AI협회 협회장으로, 국내 AI와 피지컬 AI 산업 발전을 이끄는 주요 리더로 평가받는다. 유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임베디드(내장형) AI 역량을 집중 강화하며, ‘피지컬 구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전무)은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및 경영학석사, AAP(Advanced Analyst Program)를 마쳤으며, 1999년 대우증권 입사 이후 IBK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을 거치면서 자동차 부문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다.

오랜 자동차 애널리스트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빌리티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자료 작성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하이투자증권 기업분석팀장,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을 맡고 있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는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재학 시절 AMD·애플 캐나다·엔비디아 등 글로벌 테크 기업에 거쳐 텔러스에서 디벨로퍼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AI 전문가다. KAIST 전산학부 대학원 AI 연구실에서 연구하며 ‘교육에 AI를 적용한다’는 목표표로 대규모 실습 플랫폼을 구축했고, 2015년 엘리스를 설립해 국내 AIX(산업 AI 전환) 분야를 이끄는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현재는 교육 플랫폼 ‘엘리스LXP’, AI 특화 클라우드 ‘엘리스클라우드’, PMDC 기반 AI 인프라 등 전방위 솔루션을 제공하며 산업계·공공·교육기관의 AI 전환을 견인하고 있다.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최고 기술책임자)는 연구개발부문을 총괄하며 AI·데이터 기술 고도화를 이끌고 있다. 트레저데이터 한국지사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데이터 기술 기반을 다진 전문가다.

이후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빌 CEO로 신사업·경영 전반을 총괄했으며, 무스마 CTO로 IoT(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개발했다. 토더에서는 국내 1위 테이블오더 플랫폼 개선을 주도했고, 대교 IT 자회사에서는 연구소장을 맡아 차세대 LCMS(콘텐츠관리시스템)를 설계 및 최적화했다.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하고 유상윤 대표 등 3인과 함께 공동으로 에임인텔리전스를 창업했다.

에임인텔리전스는 설립 1년이 되기 전 세계 최고 권위의 AI 학회인 ICMIL과 ACL에 4편의 논문이 동시 채택 되는 쾌거를 이뤘고 2024년 메타 ‘라마 어워드’를 수상하며 글로벌 기술 기업에서도 주목받았다. 2023년에는 크로스앵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주도해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 2022년에는 퓨처플레이의 전략 프로젝트에 참여해 초기 기술기업의 성장 전략을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메트로 한줄뉴스



▲추신수, 한국 선수 최초로 MLB 명예의 전당 후보 선정 /사진 뉴시스
▲KBO리그, CJ ENM과 유무선 중계권 재계약 합의

▲대구 세징야, K리그 10월 ‘이달의 선수상’…두달 연속 수상
▲‘신인류’ 웹반야마, 종아리 부상으로 2~3주 NBA 결장

▲KT 고영표, 투수 부문 KBO 수비상…NC, 김형준·박민우·김주원 3명 수상
▲독일, 1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네덜란드도 조 1위로 통과